

윤석열 대통령, 한일 경제인회의 일본 대표단 접견

尹 대통령 "미래세대 교류 참여 중요... 한일 양국 기업인 관심 부탁드려"

윤석열 대통령은 5. 15일 오후, 한일 경제인회의 참석차 한국을 방문한 일본 대표단을 접견했다.

대통령은 "한일 셔틀외교가 복원되기까지 12년이 필요했지만, 양국 정상회담이 오가는 데에는 두 달이 채 걸리지 않았다"고 말하면서, "양국이 경제, 산업, 과학, 문화, 인적교류 등 폭넓은 분야에 걸쳐 구체적인 협력 방안을 논의하고 있는 만큼, 양국 기업인들도 속도감 있게 협력을 추진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대통령은 또, "뛰어난 제조기술을 보유한 한국 기업들과 소부장 경쟁력이 강한 일본 기업들 간 상호 보완적인 협력이 가능하므로, 앞으로 양국 기업들이 반도체, 배터리, 전기차 등 첨단산업 분야에서 안정적인 공급망 구축을 위해 협력해 나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서 대통령은 "이번 주말 히로시마에서 개최되는 G7 정상회의에서도 한일 양국이 보건, 글로벌 공급망, 기후변화 등 글로벌 현안에 대한 협력을 더욱 구체화해 나갈 것"이라며



로, 양국 기업들도 상호 보완적 협력을 통해 글로벌 현안에 공동 대응하고, 제3국에 함께 진출해 비즈니스 기회 창출, 글로벌 문제 해결, 개도국 경제성장에의 기여 등에 있어 새로운 비전을 제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사사키 미키오 일한 경제협회 회장은 "양국 정부 간 대화가 가속화되고, 정상 간 셔틀 외교가 재개되

경제인들로서는 더할 나위 없이 기쁘다"면서, "윤 대통령의 영단과 강한 결단력에 감사하다"고 화답했다.

대통령은 "미래세대의 교류와 참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언급하면서, "전경련과 경단련이 운영하는 '한일 미래 파트너십 기금'을 통해 양국 청년들의 교류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양국 기업인들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이에 사사키 회장은 "양국의 교류 협력 사례가 크게 늘어나고 있다"면서, "코로나도 끝났으니, 이제 미래 세대인 청년 간 교류를 늘리기 위해 대학생 상호 인턴십 및 취업 증가에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아울러, 사사키 회장은 "한일 양국이 협력하면 1+1=2가 아니라 3이나 4도 될 수 있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최재은/기자

경기도, 연 이자율 최고 3만 8천274%, 살인적 고금리 수취한 사채업자 일당 검거

사업 자금이 필요한 영세자영업자나 저신용 서민 등 577명에게 총 99억 원 규모의 불법 고금리 대출을 해주고 연 이자율 최고 3만 8천274%의 살인적 고금리를 수취한 사채업자 일당이 검거됐다. 연 이자율 3만 8천274%는 전국 특별사법경찰단이 검거한 범죄 사례 중 최고 불법 고금리다.

김광덕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은 16일 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1월 2일부터 4월 28일까지 불법대부업 기획 수사를 통해 대부업법 위반 혐의로 A씨 등 10명을 검거해 이 중 7명을 검찰에 송치하고, 입건한 나머지 3명은 곧 수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송치할 계획"이라며 "최근 고물가, 고금리 상황이 지속돼 경제적 취약계층을 노리는 범죄행위 확산이 우려된다. 도는 대부업체의 불법행위를 엄정 대처할 방침이며 피해자와 도민들의 적극적인 제보를 부탁한다"라고 말했다.

수사 결과, A씨와 텔레그램 상으로 알게 된 피의자 2명은 공모해 인터넷에 '별인자금 긴급대출' 광고를 게재하고 영세자영업자 등 총 416명에게 80억 6천400만 원에 달하는 불법대부 및 대부 중개행위를 해서 10억 2천374만 원(연 이자율 최고 3만 8천274%)의 고리이자 및 중개수수료를 수취했으며, 일부 피해자들에게는 폭행을 일삼은 것으로 드러났다. 연 이자율 최고 3만 8천274%는 전국 특사경이 적발한 사례 중 최고치의 불법 고금리다.

B씨는 전당포를 운영하는 대부업자로 피해자 37명에게 귀중품(순금 목걸이, 컴퓨터 등)을 담보로 총 7천 798만 원을 대출해주고 8천451만 원을 상환받아 연 이자율 최고 6천 952%의 고금리 이자를 수취했다.

C씨는 대출금 입금 시 수수료 및 공증비 등의 명목으로 선금을 추가 입금하고 CCTV가 설치되지 않는 장소에 사전에 몰래 카메라를 설치해 현상 20%를 초과하지 않도록 해 외형상 적법한 것처럼 위장했다. 이후 86명에게 12억 2천765만 원을 대출해주고 17억 6천만 원을 변제받는 방법

으로, 연 이자율 최고 656%의 고금리 이자를 수취했다.

특히 미성년자(고3)가 온라인을 통해 37명을 상대로 불법 대출을 해주고 수수료, 지각비 등의 명목으로 고금리를 수취한 사례도 있었다.

도는 '미스터리 쇼핑' 수사기법을 활용해 불법 대부 광고 전단지 등 살포한 혐의로 피의자 4명을 검거하고 불법 광고전단지 2만 8천 장을 압수했다. 특히 이들 중 2명은 2021년도와 2022년도에 대부업법 위반 혐의로 도 특사경에 단속돼 처벌된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범행하다 들킨 것이다.

도는 바람 끝에 몰려 있는 영세자영업자 등을 상대로 살인적 고금리를 강취한다는 지역 상인의 제보를 받아 탐문수사, 압수수색영장 집행 등을 통해 얻은 방대한 자료를 바탕으로 수개월 동안 발로 뛰어가며 범죄행위를 적발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도는 불법 사금융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전통신장, 산업단지 및 각급 학교 등을 방문해 홍보캠페인, 상담, 맞춤형 교육 등을 실시하고 있으며, '불법 사금융 피해신고센터'를 통해 피해 접수·상담을 이어가고 있다.

조혜영/기자

불법사금융 주요 적발 사례

- 1. 명세 미제출로 대금잔액 미반영 후 고금리 수취 및 불법 수취**
사채업자가 대부업법 제10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명세서를 작성하여 대부업자에게 제공해야 함. 명세 미제출 시 고금리 수취 및 불법 수취 가능.
- 2. 전당포를 운영하며 불법대부업자격을 취득한 후 고금리 수취**
전당포를 운영하며 대부업법 제10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대부업자격을 취득한 후 고금리 수취 및 불법 수취 가능.
- 3. 인형상 반점 이자 연 20% 초과하지 않는 수취 이율 고금리 수취**
인형상 반점 이자 연 20% 초과하지 않는 수취 이율 고금리 수취 가능.
- 4. 민선단체가 온라인을 통해 불법 고금리 수취 및 불법 수취**
민선단체가 온라인을 통해 불법 고금리 수취 및 불법 수취 가능.
- 5. 민선단체가 온라인을 통해 불법 고금리 수취 및 불법 수취**
민선단체가 온라인을 통해 불법 고금리 수취 및 불법 수취 가능.

대한민국 4차산업혁명!! 경북 기업이 주도합니다

경북도는 5월 16일부터 한 달간 2023년 4차산업혁명 핵심기술개발사업 신규과제에 참여할 기업체, 대학, 연구기관 등을 공개모집한다고 밝혔다.

4차산업혁명을 선도하고 사업화 가능성이 높은 신규 기술개발 과제를 수행할 6개 사업자를 선정하며 선정된 사업자는 최대 2년간 연간 1억원 내외의 기술개발을 위한 사업비를 지원받는다.

4차산업혁명 핵심기술개발사업은 경북도가 지역 과학기술 역량강화와 더불어 혁신정책과 연계한 지역

산·학·연 연구개발 및 기술사업화 활성화를 위한 지원 사업으로, 2015년 시작해 현재까지 총 41개 기술개발(R&D) 과제를 지원했다.

특히, 디지털 혁신기반 재활용 고분자 전기차 2차전지 트레이 제조기술을 개발한 ㈜○○의 경우, 지난해 상반기 잠정 14억4천만원의 생산이익이 증가했다.

또 3차원 잉크젯 바이오 프린팅 기반 신약 스크리닝(선별) 플랫폼 기술을 개발한 ○○대학교 산학협력단은 대기업 등을 대상으로 약 15억원의 투자유치 성과를 낸 바 있다.

올해는 기존에 지원했던 경북도 4차산업혁명 촉진 기본계획과 연계한 17개 미래선도 품목(아래표 참조) 뿐만 아니라, 경북도의 중점 정책 추진분야인 △인공지능 △이차전지 △반도체 △메타버스 △수소연료 △SMR(소형 모듈식 원자로) 등 분야도 확대 지원하게 된다.

신규 기술개발은 사업 전담기관인 구미전자정보기술원 경북과학기술진흥센터를 통해 신청 가능하며, 상세내용은 경상북도 홈페이지, 구미전자정보기술원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 가능하다.

경북의 힘으로 새로운 대한민국

최혁준 경북도 메타버스과학국장은 "경북도는 4차산업혁명 생태계 조성을 위해 지역 기업체가 주도하고, 경북도가 지원하는 4차산업혁명 핵심기술개발사업을 10년 가까이 시행해왔다"라며 "올해는 이차전지, 메타버스, 반도체 등 미래 유망분야로 확대 지원한다. 도내 많은 기업체가 신청해 지역 미래먹거리를 선도할 혁신기술을 개발할길 바라며, 사업화할 수 있도록 경북도에서는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밝혔다.

윤근수/기자

United Nations Educational, Scientific and Cultural Organization
문화유산
Cittaslow
산소카페 청송군

名 不 虛 傳
명 불 허 전
칭 송 사 과

명불허전이라고 불리는 데는 다 그럴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독보적 존재감. 가을의 명작, 청송사과!

*명불허전: '이름은 헛되이 전해지지 않는다.'는 뜻으로, 명성이 널리 알려진 데는 그럴만한 까닭이 있음을 이르는 말.

경북도의회, 꿀벌 실종 대응방안 찾기 나서

의원연구단체 '꿀벌바이러스연구회' 연구용역 착수



경북도의회 '꿀벌바이러스연구회'는 15일 칠곡군농업기술센터에서 "경북지역 꿀벌바이러스병 발생 현황 조사 및 대응 방안 연구 용역"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날 보고회에서 연구회의 대표인 박순범 의원은 "경상북도는 전국 최대 양봉지역으로 꿀벌 폐사로 인한 피해가 가장 심각하고, 꿀벌이 사라지면서 과일과 채소류를 재배하는 농가에도 상당한 피해를 주고 있는 상황으로 도의회 차원의 대응 방안을 찾기 위해 연구를 추진하게 됐다"고 연구 배경을 밝히고, "이번 연구를 통해 농민들에게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대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연구의 책임을 맡은 길의준 교수(안동대학교 식물외과)는

"현재 농가에서 발생되고 있는 바이러스에 대한 현황 파악 자료가 매우 부족한 상황이다"고 언급하면서, "경상북도의회에서 관심을 갖고 선도적으로 추진하는 만큼 충실한 연구용역 결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이번 연구용역은 지역의 양봉 농가 등의 사활이 걸려 있는 현안 과제인 만큼 연구회 소속 의원 외에도 정한석 의원과 경상북도농업기술원 김중수 연구개발국장, 양선영 칠곡군농업기술센터장 및 양봉농업인 등이 참석하여 꿀벌 집단 폐사에 대한 심도 있는 토론의 자리가 됐으며, 연구용역에 대한 관심과 기대를 나타내었다. 꿀벌은 여러 가지 원인으로 인해 해마다 감소되어 왔고, 특히 2022년부터 2023년 동절기를 거치는

동안 경북지역 꿀벌의 봉군수가 539,000통에서 325,000통으로 급격히 감소했다. 이로 인해 양봉 농가를 비롯하여 과수, 채소 등 농업 전반으로 피해가 확대되고 있다. 특히 경상북도는 전국 최대 양봉지역으로 바이러스 전파에 따른 질병 확산과 집단 폐사가 크게 우려되는 상황이다. 이번 연구용역은 박순범, 노성환, 이우정, 이충원, 정근수, 허복 의원 등 6명의 의원이 '꿀벌바이러스연구회'를 구성하여 추진하는 것으로, 4개월에 걸쳐 경북지역의 꿀벌 바이러스 발생 현황에 대한 자료를 구축하고, 해외 꿀벌 바이러스 대응 사례 조사 등을 통하여 농가 피해 최소화를 위한 정책수립과 대안 마련에 활용될 예정이다. 윤순수/기자

서울시의회 김춘곤 의원, 19일 '서울 웰니스 산업 활성화 정책토론회' 개최

서울관광재단, 서울대, 경희대, 네이버, 카카오 등 전문가 다수 발제

서울특별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와 '웰니스 서울 정책 연구 포럼' 대표의원으로서 활동 중인 김춘곤 의원(국민의힘, 강서4)은 오는 5월 19일 오후 2시 서울시의회 제2대회의실(서소문청사 2동 2층)에서 '서울 웰니스 산업 활성화를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의료, 관광, 웰스케어 등 웰니스 산업의 다양한 분야별 전문가들이 각각의 사업 현황과 전망을 면밀하게 진단하고, 시너지 극대화를 위한 융합 방안을 서울에서의 그 실현 가능성까지 종합적으로 토론을 벌일 예정이다. 김 의원이 직접 주관하여 개최되는 이날 토론회는 ▲한국웰니스산업협회 이우람 부회장 ▲서울대의대 의료정보학 김주환 교수 ▲경희대학교 동서의학연구소 고성규 소장 ▲네이버헬스케어연구소 나군호 소장 ▲카카오헬스케어 황희 대표 ▲서울관광재단 국제관광-MICE 탁정삼 본부장의 주제발표 후 ▲서울시 관광산업과 과장 ▲서울시 바

이오시산업과 과장 ▲경인여자대학교 항공서비스학과 김정하 교수가 참여한 토론회가 진행된다. 특히, 대한민국 관광산업의 리더로 활동하고 있는 한국관광공사 김장실 사장도 본 토론회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웰니스 산업의 활성화를 바라는 마음의 영상 축사로 메시지를 전달할 예정이다. 한편, 토론회를 주관한 김 의원은 관광·호텔·외식경영 분야의 전문가로서 10여 년간 단국대학교 경영대학원(주임교수)에서 후학 양성에 힘쓰고 있고 미국 미드웨스트 대학교 석좌교수로서 국제 문화교류와 친선교류에도 앞장서고 있다. 또한 최근 베트남 대사를 직접 만나 양국 간의 웰니스 산업 교류에 관해 협의하는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웰니스 산업 발전을 도모하고 있다. 이날 토론회는 관심 있는 시민들의 직접 참관도 가능하지만 유튜브를 통해서도 5월 19일 오후 2시부터 생중계될 예정이다. 최광수/기자



경기도의회 정윤경 의원, '원도심 재개발 사업 추진시 경기도의 역할' 정책토론회 개최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정윤경 도의원(더불어민주당, 군포1)이 좌장을 맡은 '원도심 재개발 사업 추진시 경기도의 역할' 정책토론회가 5월 12일 14시 군포시 청소년수련관에서 개최됐다. 본 토론회는 경기도와 경기도의회가 공동으로 주최하는 '2023 경기도-경기도의회 정책토론 대축제'의 일환으로 개최됐다. 주제 발표를 맡은 차경환 경기도 도시주택실 노후신도시정비과 과장은 1기 신도시 재정비 정책 동향 및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의 주요 내용을 발제하며, 전문가 의견수렴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첫 번째 토론발표를 맡은 류정호 GH 도시공간정비사업처 처장은 공공사업을 시행할 경우 행정절차 간소화 및 용적률을 높일 수 있는 장점을 강조하며, "GH의 축적된 노하우로 원도심 재개발을 지원하겠다"고 제안했다. 두 번째 토론발표를 맡은 윤성진 경기도 도시주택실 도시재생추진단 단장은 "경기도 정비사업 투명성 확보를 위한 방안으로 경기도에서는 2021년부터 현장점검 추진을 했으며, 투명성 확보를 위해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근거 조항 신설 및 표준예산 회계규정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세 번째 토론을 맡은 한진운 군포시재개발연합회 회장은 재개발과 관련하여 경기도 조례에 여러 기준



이 미비한 점을 언급하며, "군포시는 주변 도시에 비해 10년 이상 개발이 늦어지고 있고 인구도 감소하고 있으므로 빠른 착공으로 재개발 추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네 번째 토론을 맡은 이영호 경부선지하화 군포추진위원회 집행위원장은 "당정역-서울역 지하화 실현 시 군포시 재개발에 긍정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며, 재개발 시 현재 미사용 중인 공공부지에 대한 적극적인 검토도 필요하다"고 주장했으며, 재개발과 관련하여 각 시군에서 정비사업 담당 매뉴얼을 표준화할 수 있도록 경기도가 역할을 해줄 것을 제안했다. 오늘 토론회의 좌장을 맡은 정윤경 의원은 "원도심 재개발과 관련하여 경기도는 경기도가 해야 할

역할을, 군포시는 군포시의 역할에 집중하여 중앙에 건의할 것은 건의하고, 도와 시에서 추진해야 할 것은 조례 및 제도 개선을 통해 적극적으로 해결해 재개발 진행에 적극 나서야 한다"며, "노후계획도시 특별법 및 정비 여건을 지속적으로 확인하고, 오늘 토론회를 통해 나온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정책에 반영하겠다"고 발언했다. 이날 토론회는 경기도의회 유튜브 라이브방송을 통해 도민들과 소통을 이어 나갔으며, 김동연 경기도지사, 이학영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엄종현 경기도의회 의장, 남종섭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 하은호 군포시장, 이길호 군포시의회 의장이 축하 인사를 전했다. 조혜영/기자

충남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9억 5550만원 삭감

국제회의 등 공무국외출장, 해외외국인 자문단 운영 등 10건 삭감

충남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는 15일 열린 제344회 임시회 제4차 회의에서 인재개발원 소관 2023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등을 심사했다. 김명숙 위원장(청양·더불어민주당)은 "10개월 장기교육생 성적우수자 시상금이 작다"며 "장기교육과정은 6급 정예과정으로 각 시·군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할 주요 인력이며, 관심 분야에 대한 연구 논문 시상금을 확대하고 기업에 응모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충남도도 알리고 본인도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해달라"고 제안했다. 윤기형 부위원장(논산·국민의힘)은 인재개발원 휴게공간 리모델링과 관련해 "MZ세대를 겨냥한 카페·편의점 등을 설치해 이용률을 높이

고 후생동 공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주문했다. 김석곤 위원(금산·국민의힘)은 "기존 시설인 골프연습장을 없애고 카페와 매점을 조성하는 것보다 공간을 개방해 골프연습장과 카페·매점을 함께 운영할 수 있도록 보수해 체육활동을 지속할 수 있도록 검토도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이지윤 위원(비례·더불어민주당)은 휴게 공간에 설치될 카페·매점 운영과 관련 "발달장애인을 바리스타로 고용해 운영중인 사회적 기업이 있으며, 인재개발원에서 카페와 매점을 운영할 외부 업체를 선정할 때 발달장애인의 일자리를 고려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재운 위원(계룡·국민의힘)은 냉

난방 교체 사업과 관련 "조달 절차 등을 따져보면 무더위가 절정에 다다를 8월까지 사업 추진이 가능할지 의문"이라며 "방학 등을 고려해 본예산에 편성하여 교육생들이 바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했다"고 지적했다. 한편, 기경위는 지난 10일부터 이날까지 2023년도 충청남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해 제출된 예산안에서 9억 5550만 원을 삭감했으며, 주요 삭감 내역은 ▲국제회의의 행사 등 공무 국외출장(1억 5000만 원) ▲해외 외국인 자문단 운영(1억 원) ▲충남지식산업센터 물품구매(5000만 원) 등 총 10건이다. 최정근/기자

용인특례시의회 의원연구단체 용인특례시 바로알기2, 오리엔테이션 개최

용인특례시의회 의원연구단체 「용인특례시 바로알기2」(대표 박인철)은 15일 오전 10시 대회의실에서 오리엔테이션을 개최했다. 이날 오리엔테이션에는 의원연구단체 회원들이 참석해 의원연구단체의 올해 활동에 대한 전반적인 계획과 벤치마킹 등에 대한 구체적인 세부 일정을 논의했다. 의원연구단체 「용인특례시 바로알기2」는 용인시 예산, 회계 등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과 함께 용인시를 외부에 알릴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하고, 향후 이에 따라 활동함에 있어 '용인을 바로 아는 것이 먼저'라는 취지로 활동을 시작하게 됐다. 박인철 대표는 "용인특례시가 단

순히 반도체 도시가 아닌 어떤 도시와 견주어도 손색이 없는 경제 자족도시로 발돋움 하려면 용인을 먼저 살피고 알릴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야 한다. 의원연구단체 활동을 통해 모든 분야에 걸쳐 세계 일류 도시 용인을 알릴 수 있도록 초석을 다지겠다"고 말했다. 신나연 간사는 "110만 용인특례시의 경제 자족도시로서의 모델을 발굴하고자 전문가 및 의원, 예산부서, 용인시민 등이 함께 공부할 수 있는 강연, 토론회 등을 마련하려고 한다. 또한, 우수사례 벤치마킹 등의 다양한 활동을 통해 특례시로서의 위상을 확보하기 위해 애쓰겠다"며 의원연구단체 활동에 대



한 의지를 밝혔다. 한편, 의원연구단체 「용인특례시 바로알기2」는 박인철(대표), 신나연(간사), 김진석, 박병민, 박희정, 김병민, 이교우, 임현수, 이상욱 의원

(9명)으로 구성됐으며, 용인특례시 지방재정의 혁신 방안을 연구하고 대안을 찾아 머뭇도시로서의 모델을 발굴하고 있다. 조혜영/기자

문화매일 http://www.dailyculture.kr 대표전화:1899.9659
대표이사:발행인:최수진. 편집국장:최재은. 부회장:박유석. 임석경 청소년책임보좌자:최수진
(주)문화매일 등록번호 서울 아 50710 등록일 2013-07-12 계호: 문화매일신문 | 등록번호: 서울 가 50146 | 등록일: 2009-04-20 구독료 월 15,000원 1부 800원
편집국:02.2612.2959 문화부:내선(116)
사 회 부:내선(113) 부동산부:내선(117)
경 계 부:내선(114) 오피니언부:내선(118)
광고국:1899.9659 스포츠부:내선(115) 지 방 부:내선(119)
서울본사: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산동 714 스카이벨리2차 708호
경기본사: 경기 광명시 시청로 7 흥신 에이스텔 701호
사외(社外) 기고는 본보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송파구 '취업성공 19데이' 중장년층 재취업 위해 i.M 택시 정규직 드라이버 100명 현장에서 바로 채용!

중장년층 재취업 위해 i.M 택시 정규직 드라이버 100명 채용...현장에서 바로 면접 진행



송파구는 오는 19일, 송파구청 4층 대강당에서 '취업성공 19데이'를 개최해 i.M 택시 드라이버 정규직 100명을 채용한다고 16일 밝혔다.

'취업성공 19데이'는 일(1)자리를 구(9)하는 날'이라는 뜻으로, 구인기업과 구직자를 사전 매칭하여 서류전형 없이 현장에서 바로 면접을 보고 채용까지 이뤄지게 하는 송파구만의 실속 있는 채용박람회다.

구는 지난 2014년부터 민간기업과의 협업 하에 매년 19데이를 개최해 다양한 직종의 취업 성과를 내왔다. 지난해에는 총 3회의 채용박람회를 통해 IT·보안컨설팅·조리보조 등 분야에서 78명이 취업에 성공했다.

올해는 중장년층의 취업시장 진입을 위한 맞춤형 일자리 매칭에 중점을 뒀다. 최근 불거진 택시운수업 종사자 인력 부족 사태와, 정부의 '빈 일자리' 지원 정책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진모빌리티의 i.M 택시 드라이버 정규직을 채용하기로 했다.

참여 대상은 만40세 이상 1종 보통 운전면허를 소지한 구직자로, 택시 운전 경력이 없는 무경력자도 지원 가능하다. '취업성공 19데이'

에서 채용설명회에 이어 인사 담당자와의 현장 면접을 바로 진행하여 채용여부를 결정한다. 최종 합격자는 교육용 거쳐 i.M 택시 소속의 송파, 강동, 성동구 소재 법인 택시회사에서 정규직 드라이버로 근무하게 된다.

참여 희망자는 '송파 일자리센터'로 5월 17일까지 사전접수하면 된다. 사전 신청자는 근무 희망지역을 고려하여 사전 매칭할 계획이며, 사전 접수를 하지 못한 경우에는 운전면허증과 운전경력증명서를 지참하여 당일 현장접수도 가능하다.

구는 '취업성공 19데이' 개최 이후에도 참여 기업과 구직자를 대상으로 송파 일자리센터를 통한 취업알선, 고용 유지 등을 안내하며 지속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서강석 송파구청장은 "참여 기업엔 우수 인재 채용의 기회를, 구직자에게는 양질의 취업기회를 제공하도록 매년 취업성공 19데이를 개최하고 있다."면서 "송파구의 많은 중장년 구직자들께서 이번 기회를 통해 취업에 성공하시기 바라며, 앞으로도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나가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황규석/기자

오세훈시장, '서울 영테크' 등 청년장병 행복 위해 국방부와 손잡는다

군 장병 대상 '청년행복프로젝트' 업무협약으로 주요 정책 청년참여 기회 및 정보 제공



서울시와 국방부가 국방의 의무를 다하고 있는 청년 장병을 대상으로 '청년행복프로젝트' 정책 참여 기회와 정보를 제공하는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5월 15일 오전 10시 서울시 청년활동지원센터(용산구 소재)에서 열린 업무협약식에는 오세훈 서울특별시시장과 이종섭 국방부장관이 참석했다.

지난해 3월 오세훈 시장이 발표한 청년행복프로젝트는 청년들이 자립하는 힘을 키워 차세대 리더로 도약할 수 있도록 일자리·복지·문화·금융·참여 등 청년의 삶을 다각도로 지원하는 내용을 담은 서울시 청년정책 중장기 로드맵이다.



이번 협약을 통해 서울 주둔 군부대에서 근무 중인 장병들은 서울시 '청년행복프로젝트' 주요 사업에 참여할 수 있게 된다. 대상 정책은 서울 영테크, 청년 마음건강 지원, 청년인생설계학교, 청년 일자리 프로그램 등이다. 20대 초반 청년 장병들이 적기에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정책 체감도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① 장병들의 안정적인 금융생활 지원을 위한 '서울 영테크' 상담 제공 : 해당 사업은 청년들의 건강한 금융자산 형성을 목표로 하는 사업으로, 군 복무 중 월급을 효과적이고 체계적으로 형성하는 것을 도와주기 위하여 장병들에게 1:1 재무상담, 금융역량강화 교육 등을 제공한다. 특히 '찾아가는 재테크 금융강의' 등 외부와의 교류가 제한적인 군부대 특성에 맞춘 금융교육 프로그램도 제공할 예정이다.

② 장병들의 건강한 군 생활을 위한 '청년 마음건강' 상담 제공 : 해당 사업은 서울 청년들의 마음건강을 돌보는 사업으로, 군 생활 특성상 폐쇄적인 환경에서 누군가에게 털어놓을 수 있는 창구가 부족함에 따라 문턱 낮은 상담창구 마련을 통해 군 장병들이 건강하게 전역할 수 있도록 마음건강 상담을 제공한다.

③ 사회로 복귀할 청년들을 위한 '청년 인생설계학교' 프로그램 제공 : 해당 사업은 청년들의 자기 이해 및 진로 탐색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사업으로 장병들 자신만의 강점을 찾고 진로를 탐색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사회에 복귀했을 때 자신감을 심어줄 예정이다. 특히 대면 프로그램으로 진행되는 사업의 특성을 감안하여 전역이 얼마 남지 않은 장병들로 대상으로하여

신청을 받을 예정이다.

④ 1:1 일자리 매칭 상담, AI 면접 체험 등 '청년 일자리' 프로그램 제공 : 전역을 앞둔 장병들의 가장 큰 고민인 일자리 문제 해결을 위하여 서울시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청년 일자리 프로그램을 장병들에게도 제공할 예정이다. 군 부대별 상담 수요파악을 통한 1:1 일자리 매칭 상담뿐만 아니라, 최근 기업에서 확산되고 있는 AI 면접·역량검사, 취업날개(면접정장대여) 서비스까지 무료 제공하는 등 장병들의 일자리 고민을 해소할 예정이다.

그 시작으로 업무협약(MOU) 체결 당일에는 청년 장병 20여 명이 참석해 직접 청년행복프로젝트 사업을 체험한다. 이후에는 오세훈 시장이 군 장병들을 만나 청년 장병들의 고민과 정책 참여 소감 등을 청취하는 '청년 장병과의 간담회'도 열렸다. 시는 참여 장병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국방부 협의를 통해 지원 대상 사업을 점차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이와 함께 서울시와 국방부는 현재 복무 중인 장병은 물론 제대한 청년들도 필요한 정책을 적기에 신청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서울시 청년정책 홍보에도 적극 협력해 나갈 예정이다.

청년 대중교통비 지원, 학자금대출 이자 지원 사업 등 장병들이 군내에서 또는 휴가를 나와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정책들에 맞추어 리플릿, 포스터를 배포할 예정이다.

더 나아가 전역 후에도 서울시 청년정책을 적기에 제공하기 위하여 예비군 훈련 시 서울시 청년정책 리플릿 배포, 홍보물 상영 등 국방부와 협력을 통해 단절되는 기간없이 청년정책 홍보를 시행할 예정이다.

이날 오세훈 시장은 "오늘 협약식을 통해 학업과 취업, 또 결혼과 주거 등 전역 후에 펼쳐질 여러 가지 인생에 대한 많은 준비를 해야 하는 우리 장병들께 심리적으로 매우 안정감을 줄 수 있는 뜻깊은 자리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20대 청년이기도 한 국군 장병들이 서울시의 청년 행복 프로젝트 주요 정책에 참여하면서 스스로 도약할 기회를 만들어가기를 바라고 또한 국방부와 힘을 모아서 현재 복무 중인 장병은 물론이고 제대해서 사회에 복귀한 청년들도 필요한 정책적 지원을 몰라서 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정책 홍보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최평수/기자

영등포구, 과학교육 중심 도시로 도약...국립과천과학관과 업무협약 체결

5.15. 국립과천과학관과 과학교육의 메카, 미래교육 선도 위해 업무협약 체결

영등포구가 '과학교육의 메카, 미래교육 선도도시 영등포'로 본격 도약한다. 구는 15일 구청 기획상황실에서 국립과천과학관과 미래 창의융합 인재 양성과 과학문화 확산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협약에는 최호권 영등포구청장, 한형주 국립과천과학관장 등이 참석해 차별화된 과학 교육으로 4차 산업 등 변화하는 교육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미래 사회에 필요한 과학인재 양성과 과학문화 확산을 위해 함께 협력하기로 뜻을 모았다.

구는 2월 과학교육에 중점을 둔 미래 창의융합 인재 양성을 위해 서울시교육청과 업무협약을 체결한데 이어, 이번 협약으로 전국 최고의 과학교육 중심 도시와 과학교육특별구 조성에 박차를 가한다는

방침이다.

양 기관은 ▲과학 교육·전시·문화 프로그램에 관한 기획·운영 ▲과학 분야 인력 양성 및 인적 네트워크 구축·이용 ▲과학 대중화 및 과학문화 확산 ▲전시물(사이판) 제작·활용 자문 ▲학습 지도서 공동 활용 체제 마련 ▲과학적 가치 구현 사업 등을 함께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구는 초·중등학교 대상 '찾아가는 과학 원리 체험교실'에 국립과천과학관의 이동형 과학원리 체험 콘텐츠 80종을 활용한 스팀(STEAM) 교육을 진행할 예정이다.

한편 구는 4월 과학의 달을 맞아 학생들이 과학적 상상력을 발휘하고 과학에 대한 이해와 흥미를 높일 수 있도록 초등학교 5~6학년 600여 명을 대상으로 국립과천과학관 탐방을 진행한 바 있다.



최호권 영등포구청장은 "첫 GPT 확산 등 인공지능이 본격화되는 시대에 과학 교육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며 "아이들이 과학에 대한 공감과 흥미를 갖고, 미래 과학 기

술을 선도할 과학도로 성장할 수 있도록 영등포구가 전폭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전했다. 박황산/기자

서초구, 소형음식점 음식물수거용기 세척·소독 시범사업 실시

구, 이달 16일부터 9월까지 음식점 밀집 주요상권 5곳 대상 음식물수거용기 세척 시범사업 운영

서울 서초구는 여름철 악취와 해충 발생의 원인이 되고 있는 지역 내 소형음식점 음식물수거용기의 세척·소독 사업을 시범운영 한다고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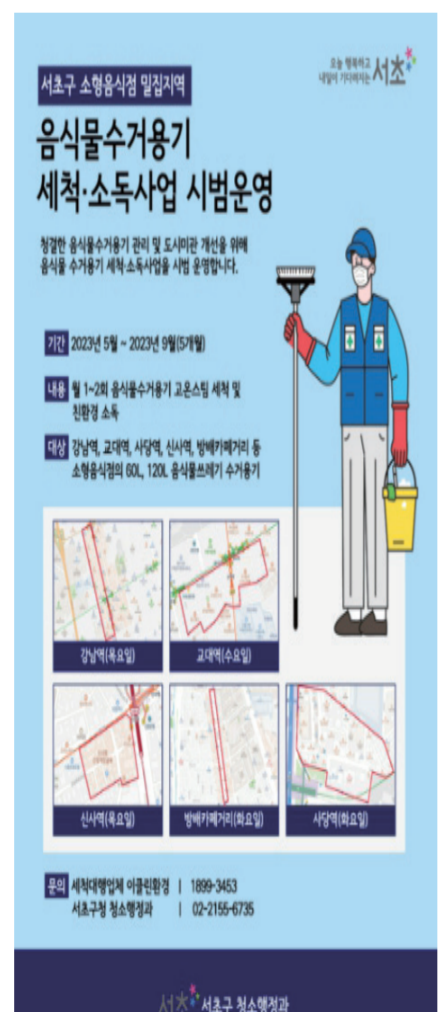
구는 사전 현장실사를 통해 음식점이 밀집해있는 주요 상권을 중심으로 ▲강남역 ▲교대역 ▲신사역 ▲사당역 ▲방배카페골목 등 총 5곳을 사업 대상지로 선정했으며 이달 16일부터 사업을 추진한다.

먼저 대상지에 있는 60ℓ, 120ℓ 음식물쓰레기 수거용기를 월 1~2회 전문업체가 방문해 고온·고압 스팀 분사 및 전문 세척용액으로 수거용기를 세척한다. 이와 함께 냄새 및 세균제거를 위해 친환경(EM) 용액을 분사, 소독해 꼼꼼히 마무리한다.

구는 오는 9월까지 세척사업 시범운영 후 상인 및 주민들의 호응도와 만족도를 조사해 점차 사업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전성수 서초구청장은 "음식물쓰레기에서 발생하는 악취와 해충으로 인한 주민불편을 최소화하고 청결한 도시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이번 시범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동희/기자



청년의 든든한 아침 위해 성북구-대학교 의기투합

성북구가 '천원의 아침밥'을 개시한 국민대학교를 15일 방문해 사업 추진 현장을 살폈다. 이날 이승로 성북구청장이 국민대학교 학생 식당을 찾아 아침식사를 함께 하며 현장에서 학생들의 목소리를 들었다. 김영배 국회의원, 한신 서울시의원 등이 동행했다.

'천원의 아침밥'은 아침식사 결식률이 높은 대학생이 1,000원에 양질의 아침밥을 먹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성북구는 이를 주제로 지난달 간담회를 열고, 지역 내 6개 대학(▲고려대 ▲국민대 ▲동덕여대 ▲서경대 ▲성신여대 ▲한성대)과 학교 부담금을 구

가 분담하는 지원방안을 논의했다.

성북구는 전국 지방자치단체 중 최초로 사업에 참여하는 관내 모든 대학에 재정을 지원한다. 구 예산 1억 5천여만 원을 투입해 '천원에 아침밥'에 들어가는 학교부담금 중 1,000원을 각 학교에 지원하기로 한 것이다. 학교 재정부담을 덜어 더 많은 청년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사업을 확대하고자 하는 취지다.

이에 따라 기존 참여 대학인 고려대학교를 비롯, 새롭게 사업에 참여하는 5개 대학이 이달 초 '천원의 아침밥' 운영을 개시했다.

15일 국민대 현장에서 이승로 성북구청장은 대학 생활과 취업 등과

관련해 청년이 겪는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이날 함께한 양은아 국민대 총학생회장은 "아침 식사를 자주 거르는 편이었는데, '천원의 아침밥' 시행 이후 저를 비롯한 학생들이 든든하게 아침을 시작하고 있다"면서 "청년들을 향한 관심과 지원에 감사"하다는 의견을 전했다.

이 구청장은 "현장에서 청년들을 직접 만나 의견을 듣는 기회를 갖게 되어 기쁘다"며 "앞으로도 '천원의 아침밥' 같은 청년의 삶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정책을 고안하고 추진하겠다. 우리 청년들 역시 구정에 관심을 가지고 적극 참여해달라"고 당부했다.

성북구 2023년 '천원의 아침밥'은 5월부터 11월까지, 하계방학(7~8월)을 제외한 5개월간 운영될 예정이다.

한편 성북구는 지난 10일 '2023년 현장구청장실 토크(TALK) 토티'를 열고 '국민대학교 이야기'를 주제로 청년들과 함께 청년문제와 청년정책에 대해 자유롭게 토론하는 시간을 가졌다. 구는 또한 대학이 많이 소재하고 청년이 많은 지역 특성을 반영해 길음청년창업거리 조성, 미취업 청년 자격증 및 어학시험 응시료 지원, K-뷰티 아카데미 운영 등 다양한 방법으로 청년정책을 펼치고 있다.

강성원/기자

이재준 수원시자원봉사센터 이사장, “수원시자원봉사, 실질적 자원봉사로서 방향성 모색할 것”

수원시자원봉사센터, ‘수원시 자원봉사자 비전수립을 위한 150인 원탁토론회’ 개최

수원시자원봉사센터 이사장인 이재준 수원특례시장은 “수원시민과 함께하는 나눔의 실천을 통해 추상적인 자원봉사에서 탈피해 현실적이고 실질적인 자원봉사로의 방향성을 모색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재준 이사장은 15일 오후 3시 수원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수원시 자원봉사자 비전수립을 위한 150인 원탁토론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 이사장은 “올 4월 말 현재 수원시 누적 자원봉사자의 수는 41만 3176명으로, 수원시 인구에 34%에 이르고 있다”며 “우리 시 봉사자들은 주로 재능, 구조, 안전·방범, 사랑의 밥차 등에서 높은 참여를 보이고 있는데 향후 문화, 인권 등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이어 “자원봉사자들의 맘 흘리는 노고를 널리 전파하고 홍보하기 위

해 자원봉사기자단을 통해 유튜브, SNS 등에서 활동을 넓혀갈 것”이라며 “자원봉사자의 처우 개선을 위해 올해 처음으로 우수봉사자 간병비 지원, 우수봉사자 지정 및 현판식, 차량 스티커 부착 등을 추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이사장은 “올해 자원봉사 신규사업으로 탄소중립 실천과 장애인 인식 개선 캠페인, 가치확산 문화행사 참여 등도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이라며 “수원시민들이 누구나 가까이서 쉽게 자원봉사를 접할 수 있도록 홍보에도 주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수원시자원봉사센터는 이날 자원봉사자 150인 원탁토론회에서 토론 의제로 ‘자원봉사 네트워크 활성화’, ‘자원봉사 서비스 품질 향상’ 등을 놓고 토론을 벌였다.

슬로건 공모는 ▲나누는 기쁨 함



이재준 수원시자원봉사센터 이사장이 원탁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날 토론회는 자원봉사(도배사업회 박권희씨) ▲봉사하는 당신! 빛나는 당신!(울림봉사단 임영진씨) ▲나누는 작은 실천, 자원봉사로 빛나다(개인 봉사자 윤설애씨) ▲따뜻한 자원봉사, 빛나는 수원시민(개인봉사자, 박미경씨) 등 4건이 최종 후보에 올랐다. 조혜영기자

평택시, 평택호 감성나들이 ‘과거로의 시간여행’

평택시 K-컬처 체험형 관광프로그램 ‘평택호 감성나들이’...오는 20일 오프ن 국제시니어모델연합회 한복 자태 뽐내며 SNS 홍보 활동 나서

경기 평택시가 평택호에 위치한 한국근현대음악관에서 한류문화체험프로그램 ‘평택호 감성 나들이’ 행사를 펼친다.

‘평택호 감성 나들이’는 평택시가 평택호의 한류관광 명소화를 위해 추진하는 K-컬처 체험형 관광프로그램으로, 오는 20일 정식 오픈을 앞두고 있다.

평택호를 찾은 관광객들은 한국근현대음악관 2층에 마련된 한복체험관에서 무료로 한복을 빌릴 수 있으며, 별도로 마련된 셀프사진관에서 기념 촬영을 할 수 있다. 또한, 한국근현대음악관 입구에서는 반려견 한복체험도 준비되어 있어 많은 반려인의 참여가 예상된다.

‘평택호 감성 나들이’ 프로그램 운영은 장마철과 혹서기를 고려해 7, 8월을 제외한 전·후반기로 나눠 진행된다. 전반기 프로그램은 5월 20일부터 7월 1일까지 매주 토요일 오후 1시부터 5시까지 운영된다.

15일은 공식 일정에 앞서 국제시니어모델연합회 회원 20여 명이 행사 홍보로 참여해 평택호를 배경으로 우아한 한복의 자태를 뽐냈다. 회원들은 자신의 인스타그램 계정에 평택시를 태그한 한복체험 사진을 올리며 행사 홍보에 열을 올렸다.

을 올리며 행사 홍보에 열을 올렸다.

사전 행사에 참여한 최하영 국제시니어모델연합회 회장은 “평택시의 전통문화체험 프로그램의 시작을 장식할 수 있어 매우 기쁘다”며, “SNS 상에서 홍보모델 역할을 톡톡히 해 많은 시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힘을 보태겠다”고 말했다.

행사 참여는 전화, 평택시 홈페이지 게시판, QR코드를 이용해 사전 접수할 수 있어 현장 접수도 가능하다. 단 사전 예약자는 행사장에 우선 입장할 수 있다. 전통문화체험과 함께 인스타그램에 인증샷을 남기면 소정의 기념품도 받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이번 전통문화체험 프로그램은 SNS를 활용해 참여와 홍보를 유도하는 체험형 관광프로그램으로, 평택시의 관광자원인 평택호를 SNS를 통해 널리 알릴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사전 예약 접수에 많은 시민이 참여하고 있어 앞으로도 SNS와 다양한 체험관광프로그램을 접목해 평택호를 한류관광 명소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양시현기자

인천시교육청학생교육문화회관, 융복합 미디어쇼 ‘Harmony of Light’

인천광역시교육청학생교육문화회관은 신개념 다원 예술 공연 융복합 미디어쇼 ‘Harmony of Light」를 6월 3일 오후 4시 2층 짜리재홀(대공연장)에서 60분간 진행한다.

「Harmony of Light」는 레이저, 비트박스, 전통탈춤, 비보이 등 다양한 장르의 콘텐츠와 현대 기술이 만나 융복합이라는 주제로 다채로운 색감과 영상이 펼쳐지는 미래 지향적인 공연이다.

▶전통 무용 화관무를 화려한 화관, 꽃 등 소품에 형형색색 빛을 가미한 ‘LED 화관무’ ▶전래동화에 등장하던 도깨비를 오방색으로 표현한 ‘오방색’ ▶암전 속에서 무용수들이 LED로 만들어진 구를 들고 등장하는 퍼포먼스인 ‘Light Ball’ ▶비트박스와 비보이들이 어우러진 퍼포먼스 공연 ‘Beat Box&B-boy’ 순으로 진행된다.

학생교육문화회관 관계자는 “이번 공연은 다양한 장르의 콘텐츠와 현대 기술이 만난 미래지향적인 공연”이라며 “다채롭고 화려한 공연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번 공연은 기획공연으로 관람 대상은 5세 이상이며, 관람료는 학생 무료, 일반인은 1만 원이다.

김종남기자

디지털 시대를 선도하는 토당청소년수련관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디지털 체험역량 ‘세상을 잇는(IT) 이야기’로 창의력 UP

고양시청소년재단은 지난 2월과 5월 토당청소년수련관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청소년에게 디지털 체험역량 강화를 위한 ‘세상을 잇는(IT) 이야기’와 기초과학을 바탕으로 한 창의 융합 과정 ‘찾아가는 과학관(과학 놀이터)’를 진행했다고 16일 밝혔다.

코딩을 활용한 디지털 역량이해, 인공지능, 아두이노 창의융합 프로젝트를 통해 우노보드 메이커를 활용한 ‘세상을 잇는(IT) 이야기’에 참여한 방과후아카데미 청소년들은 “IT 분야에 관심이 생겼다”, “프로젝트를 통해 창의적 생각하는 힘이 길러졌다”, “로봇으로 코딩하는 방법을 알게 됐다” 등 다양한 의견을 참여소감으로 이야기 했다.

또한, 물리, 화학, 생물, 에너지 등 기초과학을 활용한 창의융합과정을 담은 ‘찾아가는 과학관’을 참여를 통해 전시, 과학체험, 과학교실로 청소년에게 과학탐구를 통한 지



적 호기심으로 동기 부여 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고 강조했다. 본 체험은 5월 11일부터 5월 23일까지 토당청소년수련관 1층에서 참여 가능하다. 토당청소년수련관(관장 유종원)은 여성가족부 ‘제7차 청소년정책 기본계획(2023년~2027년)’에 따라 ‘청소년 디지털 역량 제고를 위한

한영기기자

2023 안성시청소년어울림마당 Opening ‘들머리’...‘수많은 관객 앞에서 포텐 터트려’



‘2023 안성시청소년어울림마당 Opening 들머리’ 행사가 현장 무대에 목말랐던 청소년들에게 포텐을 터트렸다.

지난 5월 13일(토) 약 4시간여 펼쳐진 ‘2023 안성시청소년어울림마당’ Opening ‘들머리’는 청소년들이 온·오프라인을 통해 다양한 끼와 재능을 발휘하며 체험과 공연무대에 목말랐던 청소년들의 갈증을 해결했다.

청소년들의 다양한 문화적 감수성과 재능들을 펼쳐 보인 이번 어울림마당은 그동안 진행된 어울림마당과는 차별화된 기획으로 대규모 관객이 모여들면서 함께 어우러지는 진풍경을 방점으로 찍으며 순수한 청소년기의 풋풋한 기록으로 남기게 됐다.

미래위원회 김현 회장과 김예슬 공동회장이 사회자로 나서 진행된 개막식 행사는 안성시 내해출광장에서 1,000여명의 관객이 운집한 가운데 열렸으며, 실시간 생방송으로 동시 송출되어 2일간 누적 시청자 수 약 1,300여 회를 육박하는 성과를 올렸다.

안성시와 여성가족부가 주최하고 한국청소년복지문화원 안성지부가 주관한 이날 행사는 밴드, 댄스, 약기연주, 퍼포먼스 등 15개의 공연 및 11개의 체험활동, 복면기왕 수상자 앵콜공연 등 청소년들이 주제적으로 기획하고 진행되는 축제의 한마당으로 펼쳐졌다.

또한 지난 Pre-Opening ‘복면기왕 시즌 4’에서 화려한 군무로 대상을 차지한 케이틴 댄스팀과 독보적인 퍼포먼스 실력으로 최우수상을 수상한 단체줄넘기팀, 우수상의 영

광을 안은 자타공인 명품댄스를 선보인 더 루스팀 등에게 표창과 장학금 전달이 이어졌다.

특히 참가팀들의 우열을 가리기 힘들었던 이번 복면기왕 시즌 4에서는 문라이트(댄스), 호호린(보컬), 벨리댄스팀, 김민수(랩), 이은빈(댄스), 허스밴드, 가락지킴이(장구) 팀들에게 특별상을 긴급하게 만들어 표창과 장학금을 전달하며 청소년들의 열기에 답했다.

김보라 안성시장은 17시에 체험활동이 진행되는 내해출광장을 찾아 청소년들과 관계자를 격려하며 “아름답고 선한 축제의 장으로 꾸며준 청소년 동아리들과 온·오프라인을 통해 응원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라며 “온 마음이 나서 한 아이를 키우듯 안성시도 청소년들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김영식 한국청소년복지문화원 안성지부장은 “수년간 청소년어울림마당을 주관하면서 이번 개막식행사처럼 수많은 인파속에서 청소년들이 보여준 자율적인 안전의식에 좀 더 성숙해진 청소년 문화와의 소통에 변곡점이 됐다”라며 “그들 스스로가 역사가 된 날”이라며 감사의 말을 아끼지 않았다.

아울러 김학용 국회의원을 대신한 한상수 사무국장은 어울림마당 개최에 대한 축전을 전했고, 최혜영 국회의원과 정토근 안성시의회 부의장은 끝까지 행사를 지켜보며 “청소년들의 꿈과 재능에 큰 박수와 함께 늘 응원한다”라는 메시지를 한복소리로 전했다.

양시현기자

성남도시개발공사, 제69회 경기도체육대회 성공 뒷받침

제69회 경기도체육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한 성남도시개발공사(이하 공사)의 부단한 노력이 결실을 맺었다.

지난 13일, 제69회 경기도체육대회가 성남종합스포츠크터 다목적체육관에서 열린 폐회식을 끝으로 마무리됐다.

공사는 이번 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체육도서관사업단장과 시설팀장을 필두로 TF 조직을 구성, 대회 준비에 만전을 기했다.

먼저 올해 초, 지난 대회 개최지인 용인특례시를 방문해 원활한 경기 및 행사 진행을 위한 운영 사항과 경기장 시설 정비 관련 등을 중점 사항으로 파악했다.

특히,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대회 안전 관련 사항을 점검하는 등 안전사고에 즉각적인 대응을 위한 비상 연락망 구축, 비상근무조 편성, 안전사고 대응 훈련 등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했다.

이어 성남시와 공동으로 안전 점검을 실시해 선수 등 이용자 측면과 관람객 및 참석자 측면 등 안전한 대회 운영을 위해 세심하게 관련 사항을 준비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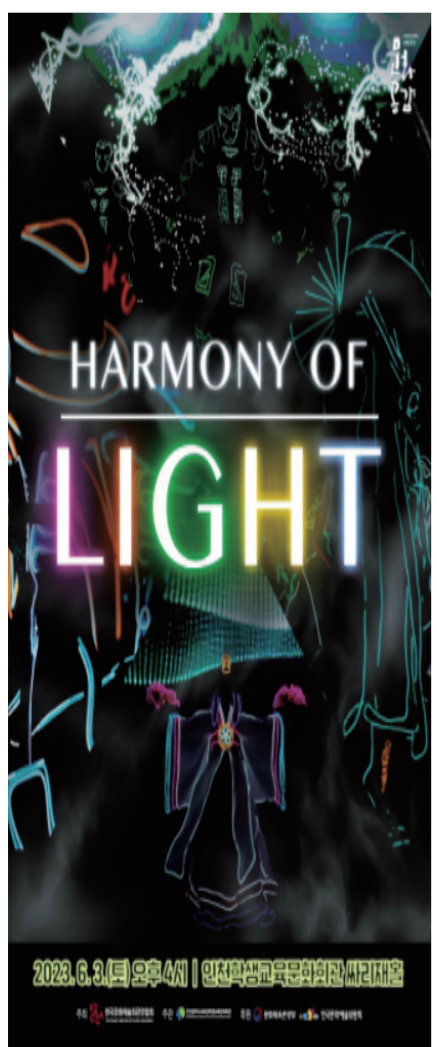
사전 준비 끝에 지난 11일 경기도체육대회 개최식이 성남종합운동장 주경기장에서 열렸다.



이날 개최식은 각 시·군 선수단, 대회 관계자, 행사 참가자 등 각종 차량들로 극심한 혼잡을 이뤘다. 이에 공사 직원들이 현장에 나와 안내와 안전관리를 지원하며 경기장 위치 안내, 각종 동선 통제와 전반적인 상황을 점검하는 역할을 담당했다.

3일간의 대회 기간, 보이지 않는 곳곳에서 공사 직원들은 묵묵히 맡은 역할을 충실히 해내며 마지막 날까지 대회를 무탈하게 마칠 수 있었다. 이번 경기도체육대회는 경기도 31개 시·군 대표 선수 11,000여명이 참여하는 화합의 장으로 공사는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지난해부터 숨 가쁘게 달려오며 지난 13일 대단원의 막을 내렸다.

이성윤기자



2023.6.3.토 오후 4시 | 인천광역시교육청학생교육문화회관 대공연장

화성시, '마을공동체 주민제안 공모사업' 공모

화성시가 오는 30일까지 '마을공동체 주민제안 공모사업(3차)'에 대한 공모를 실시한다고 16일 밝혔다. '마을공동체 주민제안 공모사업'은 주민들이 모임을 형성하여 자발적인 참여로 지역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참여대상은 화성시민 또는 화성시에 직장, 학교 등 생활권을 둔 3인 또는 10인 이상의 모임이 대상이다. 지원 규모는 총 3개 분야 16개소 5천600만 원으로 ▲공동체를 형성하고 활동의 계기를 마련하기 위한 '씨앗'분야 ▲다양한 주민주도 마을공동체 실천 활동 지원을 위한 '줄기'분야 ▲화성시 공동체 특화모델

발굴과 확산을 위한 '주제지정' 분야에 각 200~500만 원 이내의 공동체 활동을 위한 사업비를 지원한다. 또한, 시는 공모사업 신청 과정 중 어려움을 느끼는 모임에 대해 활동 방향 설정과 신청서 작성 방법 등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사전컨설팅도 지원한다. 우정숙 자치행정과장은 "이번 공모사업이 주민 스스로 지역문제 해결과 변화하는 마을을 만들어가는 마중물이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마을공동체 성장기반을 조성하고 마을공동체 발굴과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양시현/기자

용인시, 전국대도시시장협의회 소속 6개 도시 시장, 아랍에미리트(UAE) 주요기관과의 협력관계 모색 위해 UAE 방문

두바이 시청, 아부다비 투자청 등 7개 기관 방문

전국대도시시장협의회(협의회장 : 이상일 용인특례시장)가 아랍에미리트(UAE) 아부다비 투자청 등 주요 기관과의 협력관계를 모색하기 위해 15일부터 20일까지 4박 6일의 일정으로 UAE를 방문한다고 밝혔다. 이번 방문에는 전국대도시시장협의회장을 맡고 있는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을 비롯해 협의회 소속 신상진 성남·정명근 화성·주광덕 남양주·이민근 안산·김병수 김포시장과 관계 공무원들이 동행한다. 방문단은 중동지역 관광 및 경제 산업 중심지인 두바이의 도시 관리를 책임지고 있는 두바이 시청(Dubai Municipality), 두바이의 디지털 변혁을 주도하는 디지털 두바이(Digital Dubai Authority) 등 두바이의 4개 기관과 아랍에미리트 최대의 국부펀드인 아부다비 투자청(Abu Dhabi Investment Authority),

아부다비 MICE 산업의 중심기관인 아부다비 컨벤션뷰로(Abu Dhabi Conventions & Exhibition Bureau) 등 아부다비의 3개 기관 등 모두 7곳의 UAE 주요 기관을 찾아 기관장들과 교류·협력 방안을 논의한다. 전국대도시시장협의회 소속 6개 도시 시장들은 주 UAE 대한민국 대사관의 류제승 대사와 두바이 대한민국 총영사관의 문병준 총영사를 각각 만나 중동과 UAE의 경제 현황, UAE 기업의 국내 투자 및 진출 등에 대한 의견을 나눌 예정이다. 전국대도시시장협의회는 저탄소 수소경제도시 전환에 가속화를 하고 있는 아부다비시의 친환경 대표 기업인 AI Fattan Energy와 함께 저탄소 친환경 도시 발전을 위한 포괄적 업무협약(MOU)을 체결할 예정이다.

조혜영/기자

안양시, '쓰레기 줄이고 분리배출 바르게' 시민 수도권매립지 견학

분리배출 중요성 깨우치고 환경 경각심 제고...다음달 22일 2차 견학 추진

안양시가 지난 15일 생활쓰레기를 줄이고 올바른 분리배출 정착을 위해 관내 주민자치위원 및 통장 등을 대상으로 수도권매립지 현장 견학을 추진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날 견학에 나선 시민 32명은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가 운영하는 분리배출 교육, 생활폐기물 반입규정 위반사례 확인, 매립장 현장 교육에 참여했다. 특히, 잘못된 분리배출의 심각성, 분리배출의 중요성을 깨우치고 환경에 대한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고자 생활폐기물 반입지 현장에서 안양시 쓰레기봉투를 절단해 직접 분리배출 여부를 살펴보는 시간도 가졌다. 또 수도권매립지에 조성한 야생화 공원으로 둘러보며 환경 보존과 자연 회복의 의미도 되새겼다. 최재호 안양시장은 "분리배출의

중요성을 잊지 말고 분리배출을 생활에서 반드시 실천함은 물론 이웃에게도 전파해줄길 바란다"며 "생활폐기물을 줄이고 올바른 분리배출을 정착시키기 위해 다양한 사업을 발굴하고 추진하겠다"고 전했다. 시는 분리배출 시민 인식 개선과 활성화를 위해 다음달 22일 주민자치위원 및 통장 등 34명을 대상으로 한 차례 더 수도권매립지 현장 견학을 추진할 계획이다. 한편, 안양시가 수도권매립지에 반입하는 폐기물은 월평균 1084톤(2023년 기준)이다.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는 생활폐기물 반입 조정 및 환경 보존을 위해 연 3회 이상 분리배출 위반율이 월 15%를 넘는 경우 폐기물 반입 정지 조치를 하고 있다.

신우용/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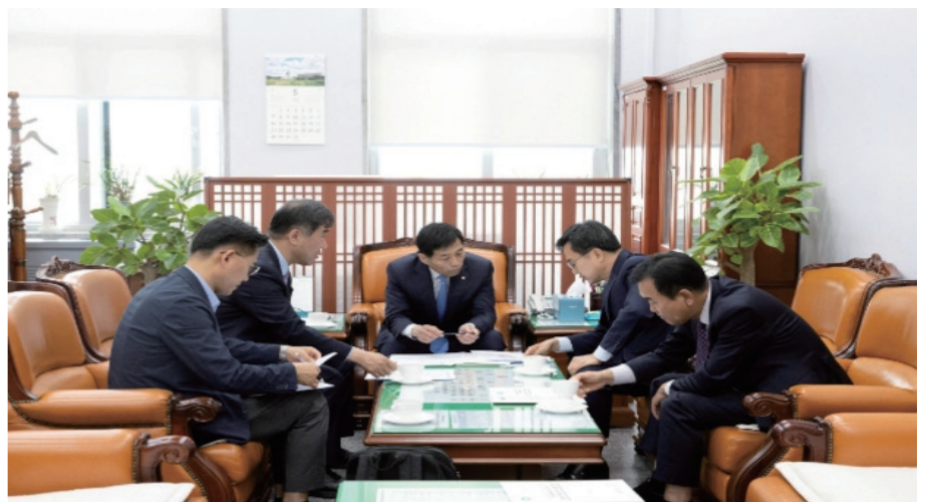


경기도 김동연지사, 국회에 전세 피해 지원 및 예방제도개선제안

15일 국토위 김민기 위원장, 김정재 국민의힘 간사, 맹성규 민주당 전세사기대책특별위원장과 간담회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전세 피해 지원과 근본적 예방 대책 마련을 위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를 찾아 전세 피해자 지원 대상 확대 등 제도개선을 제안했다. 앞서 지난 11일 기자회견을 열고 단계별 제도개선을 정부에 건의한 데 이어 4일 만에 국회를 찾아 직접 건의문을 전달하고 정책을 공식으로 제안한 것이다. 김동연 지사는 1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건의문을 전달하고 김민기 위원장, 국토위 소속으로 더불어민주당 전세사기대책특별위원장을 맡고 있는 맹성규 의원과 함께 정책을 논의했다.

김동연 지사는 "전세 사기 문제로 많은 분들이 고통을 받고 있고 앞으로 부동산 경기에 따라서는 이와 같은 피해가 더욱 확대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라며 "그동안 경기도가 할 수 있는 노력을 기울였지만, 경기도나 지방정부의 힘만으로는 어려운 구제적인 부분이 있어서 오늘 피해 대책을 중앙정부에 촉구하고 국회에 건의를 드린다"고 말했다. 7개의 건의안을 설명한 김 지사는 "7개 대책을 가지고 동탄과 다른 피해가 있을 수도 있는 지역을 시뮬레이션 해봤는데 이 정도면 피해구제와 앞으로 있을 수 있는 것에 대한 예방도 되지 않을까 한다"라며 "다 같이 한 마음으로, 전세 피해자들 대부분이 서민층이고 어려운 분들인데



피해를 보신 분들에게는 최대한 구제를, 또 앞으로는 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 조치가 만들어졌으면 하는 기대를 가져본다"라고 덧붙였다. 김민기 국토교통위원장은 "경기도가 전세 피해 문제에 대해 큰 관심을 갖고 가장 적극적으로 나서주신 점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전세 피해 문제는 세입자 개개인의 문제로 보서는 안 되고 사회적 재난 수준으로 해법을 찾아야 한다"라며 "전세 사기 피해 대상 확대와 피해보증금 보전을 위한 실질적 대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정부가 전향적인 태도를 보여주길 촉구한다. 모쪼록 내일 법안이 시행되고 나면 지자체의 역할이 매우 중요한 만큼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김동연 지사님과 과도 계속해서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다"라고 약속했다. 아울러 김 지사는 국토위 국민의힘 간사인 김정재 의원을 만나서도 같은 내용을 설명하고 협조를 요청했다. 김 지사는 7가지 정책을 제안하면

서 관련 주택임대차보호법, 민간임대주택특별법, 공인중개사법 개정 등을 촉구했다. 한편, 경기도는 도내 전세 피해 임차인의 법률·금융지원·주거지원 등 종합적 상담을 제공하기 위해 경기도 주거복지센터 내 '전세피해 지원센터'를 운영 중이다. 도는 경기주택도시공사(GH) 공공임대주택 공사 등을 활용한 긴급 지원주택 입주자를 위한 이주비(최대 150만원)를 지원할 예정이며 조례 개정 등을 통해 생활고를 겪는 피해자에게 긴급생계비를 100만 원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또 피해자들의 자력 구제 방안으로 피해자 중심의 협동조합 설립을 지원할 계획이다.

조혜영/기자

광명시, AI가 건강 취약계층 챙기는 '광명 AI 케어콜' 23일 시작

사람처럼 대화하는 AI가 매주 전화해 안부 묻고 건강 체크... 고독사 예방

광명시는 16일 AI(인공지능)가 전화를 걸어 1인 가구 등의 건강을 챙기는 AI 케어콜 서비스를 23일부터 시작한다고 밝혔다. 서비스 대상은 지난 4월 공모를 통해 모집한 중장년 1인 가구와 홀몸 어르신 등 건강 취약계층 500명이며 12월까지 제공한다. AI 케어콜은 주 1회 AI가 자동으로 전화를 걸어 건강, 식사, 수면, 운동, 외출 등 안부를 묻고 건강을 관리해주는 서비스로, 건강 취약계층의 건강관리와 고독사 예방을 위해 도입했다. 사람처럼 자연스러운 대화가 가능한 AI가 대상자의 건강 상태를 확인하고 영양 섭취와 신체활동을 유도한다. 또 다양한 주제로 일상적인 대화를 나눠 중장년 1인 가구와 홀몸 어르신이 겪는 고독감을 해소한다. 이전 대화 내용을 기억하고 다음 통화에 활용하는 '기억하기' 기능도



있어 개인 맞춤형 대화가 가능하고, 광명시 재난경보 발생 시 대상자 안전을 확인해 안전 수칙을 안내하는 등 위기 상황 예방 기능도 있다. 시는 대화 내용 모니터링을 통해

위기 징후가 발생되거나 행정적인 지원이 필요한 경우, 방문 건강관리 사업, 동 행정복지센터와 연계해 복지 및 건강관리 서비스를 지원할 예정이다.

윤용민/기자

세계인의 날 맞아 'Together Day Festival 시흥시 어울림 축제' 연다

시흥시가 제16회 세계인의 날을 맞아 오는 21일 정왕동 미관광장에서 다양한 국적의 외국인주민과 다문화가족 및 시민들이 함께 어울리는 'Together Day Festival 시흥시 어울림축제' 세계인의 날 기념행사를 개최한다. 매년 5월 20일은 '세계인의 날(Together Day)'로, 국민과 외국인이 더불어 살아가갈 수 있는 사회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지정된 국가 기념일이다. 시는 코로나19로 인해 지난 3년간 세계인의 날 행사를 중단했으나, 엔데믹(감염병 일상 유행)이 성큼 다가온 올해, 일상 회복의 하나로 세계인이 다함께 어울릴 수 있는 시간을 마련하고자 16번째 축제를 개최하기로 했다. 이번 축제는 'Together

Day Festival 시흥시 어울림 축제'라는 주제로, 21일 오후 1시부터 정왕동 미관광장에서 지역 풍물패와 우리나라를 포함한 13개 국가의 세계의상 축제로 시작된다. 또, 필리핀 댄스 팀(LEGITIMATE DANCERS)과 시흥시 태권도 시범단의 신나는 식전공연에 이어, 중국, 베트남, 네팔, 캄보디아 등 세계 각국의 댄스, 패션쇼, 전통춤 공연과 시흥시립전통예술단의 사물놀이, 동춘서커스, 걸그룹 팀A의 K-POP 커버댄스 등 내·외국인이 함께 즐길 수 있는 무대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선보일 예정이다. 아울러 축제장 내에는 세계 각국의 음식과 문화를 즐길 수 있는 30여 개의 체험부스가 운영된다. 본국을 그리워하는 외국

인과 해외여행을 꿈꾸는 내국인에게 흥미와 재미를 가져다주는 먹거리, 놀거리가 가득해 내·외국인이 상호문화를 교류하고 공감할 수 있는 특별한 시간이 형성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외에도 의료 지원, 건강안전 홍보, 일자리 상담, 출입국 상담 등 유관 기관에서도 홍보 부스를 운영해 지역주민과 외국인주민들을 위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다. 임병택 시흥시장은 "세계인의 날을 기념한 이번 축제는 외국인과 지역주민이 서로의 문화와 전통을 존중하며 더불어 살아가고 있는 만큼, 많은 시민이 참여해 모두가 즐거운 시간을 만끽하길 바란다"고 전했다.

신우용/기자



부산시, 교육취약계층 어린이 2,030명에 '2030엑스포스튜디오' 체험 기회 제공

4.3.부터 26일 동안 복지관, 드림스타트, 지역아동센터 등에서 초청해 무료 체험 진행

부산시와 키자니아 부산(대표이사 강재형)은 지난 4월 한 달 동안 교육취약계층 어린이 2,030명을 초청해 '2030엑스포스튜디오'를 체험해보는 기회를 제공했다고 밝혔다.

시와 키자니아 부산은 지난 3월부터 오는 6월까지 직업체험 테마파크인 키자니아 부산 내부에 '2030엑스포스튜디오(6층)'를 운영한다. 키자니아 부산을 방문하는 미래세대 어린이들에게 2030부산세계박람회 개최의미와 당위성을 설명하고, '광고 기획자'이자 '어린이홍보대사'가 돼 각종 활동을 펼치면서 2030부산세계박람회를 홍보해보는 직업체험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이번 교육기부 활동은 세계박람회의 지향가치인 '교육, 혁신, 협력'을 직접 실천하고 나누기 위해 마련됐다. 이들 기관은 지난 4월 3일부터 26일 동안 일자별로 복지관, 드림스타트, 지역아동센터 등에서 '2030엑스포스튜디오'를 무료로 체험할 2,030명의 어린이를 초청했다.

또한, '2030엑스포스튜디오' 체험

이외에도, 키자니아 부산에서 운영 중인 마트마켓, 승무원, 요리사 등 50여 가지의 직업체험 기회도 제공해 적성과 희망에 맞는 진로를 찾아볼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했다.

시는 이번 교육기부 활동이 2030부산세계박람회의 개최의미와 당위성, 그리고 개최 후보도시 부산의 강점과 매력을 알아볼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범국민적 유치 열기 조성에 이바지했고, 특히 평소 키자니아 부산을 방문하기 어려운 교육취약계층 어린이들에게 다양한 직업체험의 기회를 무료로 제공해 2030부산세계박람회의 부주제인 '돌봄과 나눔'도 성공적으로 실천했다고 설명했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교육취약계층 어린이들에게 2030부산세계박람회를 체험해보는 소중한 경험을 선사하고 균등한 교육 기회를 제공해 주신 키자니아 부산 관계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라며 "미래의 지속가능한 사회는 뛰어난 개인 한 사람의 힘으로 지속되는 것이 아니라 사회 구성원 모두의 노력과



희생으로 만들어지는 만큼, 우리는 '교육, 혁신, 협력' 그리고 '나눔과 돌봄' 실천으로 사회 구성원 모두가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전했다.

한편, 시는 오는 5월 19일부터 5월 28일까지 '더 웨이브(The Wave)' 플랫폼 참여 이벤트를 진행한다. 이 플랫폼에서 '2030엑스포스튜디오' 체험 등 더 나은 지구와 인류의 미래를 만들기 위한 활동에 참여한 내용을 글로 작성하고, 2030부산세계박람회 누리소통망(SNS-인스타그램)에 해시태그를 달면 추첨을 통해 소정의 기념품을 제공한다.

송준진/기자

경북소방본부, '메타버스형 소방 안전 소식 공간' 오픈

가상공간 내 실감형 홍보 전시 및 소식 알람 서비스 제공

경북소방본부는 메타버스 플랫폼을 활용한 '소방 안전 소식 공간'을 오픈했다고 밝혔다.

차세대 트렌드인 메타버스 플랫폼을 소방분야에 활용하기 위한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대표적인 홍보·전시 메타버스 플랫폼인 '스페이셜(Spatial)'을 활용해 '소방 안전 소식 공간'을 가상공간에 구현했다.

'메타버스형 소방 안전 소식 공간'은 아바타를 통해 재난 속 주요 소방 활동에 대한 사진 전시관으로 입장할 수 있으며, 공간 이동이 가능한 포털시스템을 활용해 '2023년 119 경북안전소식지(5월 창간호)'를 대형스크린으로 실감나게 감상할 수 있다.

또한 '스페이셜(Spatial)' 플랫폼의 PC·모바일 동시지원 및 비디오·오디오를 통한 원활한 아바타간 의사소통 기능을 활용해 가상과 현실의 경

계에 구애받지 않고 입체적인 다중 관람이 가능하다.

소방 안전 소식 공간은 홈페이지 및 앱(안드로이드·앱스토어 내 '스페이셜' 검색 후 다운로드) 검색창에 '경북소방'을 입력하면 해당 공간으로 접속할 수 있다.

앞으로도 경북소방본부는 메타버스 T/F팀을 활용해 다양한 메타버스 플랫폼의 특성을 살린 교육·홍보·체험 콘텐츠를 확대 추진할 계획이다.

이영팔 경북도 소방본부장은 "메타버스는 다가올 시대를 이끌어 갈 새로운 산업 모델로서 사회 전반에 걸쳐 변화와 혁신을 초래할 것"이라며, "4차 산업혁명과 웹3.0 시대 급변하는 기술발전이 발맞춰 첨단 정보기술을 소방에 지속적으로 도입해 도민에게 최상의 소방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근수/기자



윤근수/기자

「제2회 김천국제음악제<뮤지컬 투나잇>」
5월 25일(목) 김천시 문화예술회관에서 펼쳐진다.

김천시(시장 김충섭)는 '제2회 김천국제음악제'를 5. 25.(목) 19:30 김천시 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에서 무지크브로이 주관으로 개최한다고 밝혔다.

제2회 김천국제음악제는 김천 출신의 세계적인 성악가 이용광을 비롯하여 로랑 방, 크리스토프 세리노 등 유명 프랑스 뮤지컬 배우 8명이 내한하여 프렌치 뮤지컬 '레 미제라블', '노트르담 드 파리', '모차르트 오페라 라'를 김천시민들에게 선보인다.

관람료는 R석 2만 원, S석 1만 원이며, 학생(초, 중, 고, 대학생)은 50%, 단체(20명 이상)는 30%가 할인된다. 예매는 티켓링크에서 5. 12.(금) 14:00~5. 24.(수) 14:00까지 가능하다. 이하 공연 관련 자세한 사항은 070-4038-7179로 문의하면 된다.

시청 관계자는 "김천에서 평소 접하기 힘든 수준 높은 공연인 만큼 시민들의 문화예술에 대한 욕구를 충족시킬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전했다.

김동현/기자

제2회 김천국제음악제
뮤지컬 투나잇
MUSICAL TONIGHT
2023. 05. 25(목) 7:30PM
김천시 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

관람등급 8세 이상 공연료 1석 20,000, 5석 10,000
출연자 이용광 외 8명(프랑스 뮤지컬배우)
공연내용 프렌치 뮤지컬 <레 미제라블> (레 미제라블, 노트르담 드 파리, 모차르트 오페라)
예매 티켓링크(5. 12.(금) 14:00~5. 24.(수) 14:00까지)
문의전화 | 070-4038-7179

'통영시 청년정책위원회' 위촉식 및 회의 개최

청년 목소리 담은 청년정책을 펼치겠습니다

통영시는 지난 12일 통영시청 회의실에서 청년정책위원회 위촉식 및 회의를 개최하여 2023년 청년정책위원회 위촉직 위원 11명을 위촉하고, 2023년 청년정책사업 소개와 위원회의 운영계획 등을 설명하며 청년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시정에 반영하고 소통하기 위한 힘찬 발걸음을 내딛었다.

이번에 위촉된 청년정책위원회 위원은 '통영시 청년 기본 조례'에 따라 당연직 위원 2명과 시의회, 외부기관 추천 및 공개모집을 통한 위촉직 위원 11명을 포함하여 총 13명이며, 위원회는 통영시 청년정책 시행계획의 수립과 변경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 의결하는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위촉장 수여 후 진행된 위원장 선출에서는 정영민 위원이 위원장으



로 호선되어 "통영에서 나고 자라 누구보다 통영에 대해 잘 알고, 청년관련 공모사업 참여를 통해서 배운 점도 많다"며 "이런 경험들을 바탕으로 통영에서 청년들이 더 잘 생활할 수 있는 해법을 찾는데 도움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정영민 통영시장은 "통영시 청년정책위원회가 청년을 위해 좋은 지혜를 건네 줄 것으로 기대하고, 청년들이 도전하고 꿈을 펼칠 수 있도록 희망과 믿음이 되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용준/기자

북게 물들어 가는 청송의 봄

주왕산관광단지, 진보 객주공원 등 꽃양귀비 활짝



청송군의 주왕산관광단지와 진보면 객주정원에 꽃양귀비가 활짝 피기 시작하며 관광객들을 반기고 있다.

청송군은 최근 주왕산면 하의리 주왕산관광단지에 꽃양귀비가 개화를 시작해 관광객들을 맞을 준비를 마쳤으며, 오는 25일 즈음에 만개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군은 주왕산관광단지에

16,000m²(4,900평) 규모의 관상용 꽃양귀비 단지를 조성하여 지역주민과 청송군을 방문하는 관광객에게 힐링의 공간을 제공하고 있다.

또한 진보면 객주정원(5,700m²)에도 꽃양귀비가 개화하여 또 다른 장관을 이루고 있어, 주왕산관광단지와 함께 추억을 만드는 장소로 주목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윤경희 청송군수는 "지역 곳곳에 계절별로 화원을 조성해 산소카페 청송정원과 더불어 많은 관광객이 방문하는 청송의 명소가 될 것이다"며 "가족, 친지와 함께 청송의 여러 명품 정원들을 만끽하며 잊지 못할 추억을 만들어 보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윤근수/기자

홍준표 대구광역시청 청년의 꿈 주제 영남고등학교 특강

홍준표 대구시장은 제42회 스승의 날인 15일 오전 11시 영남고등학교 강당(해당관)에서 영남고 재학생, 교직원 등 1,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청년의 꿈'이란 주제로 특강을 가졌다.

홍 시장은 특강에서 가난하고 배고팠던 학생 시절 항상 꿈을 꾸고, 그 꿈을 실현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했던 끈기의 중요성을 학생들에게 강조했다며, 쇠락한 대구가 다시 한번 일어서 한반도 3대 도시의 옛 영광을 재현하고자 노력하고 있는 대구광역시청의 꿈에 대해서도 학생들과 함께 나눴다.

특히, 정치, 사회 전반은 물론 진

로, 꿈 등 학생들의 다양한 질문에 대해 즉답에 나섰으며, 특유의 시원하고 명쾌한 답변으로 학생들의 많은 호응을 자아냈다.

끝으로, 다시 한번 꿈은 청년이 가진 최고의 특권으로 꿈꾸는 청춘을 강조하며, "대구의 청년들이 굳이 서울을 가지 않아도 서울 못지않은 일자리와 주거 환경이 잘 갖춰진 대구에서 청춘의 꿈과 희망을 마음껏 펼칠 수 있도록 만들고, 나아가 글로벌 시대, 새로운 하늘길을 중심으로 전 세계와 교류, 소통할 수 있도록 만들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윤근수/기자



윤근수/기자

대구 북구청, 이웃과 함께 하는 "맞춤형 Green 실천교실" 운영

대구 북구청(청장 배광식)은 북구 주민들을 대상으로 유용미생물(EM)을 활용한 친환경제품을 직접 만들어 보는 "맞춤형 Green 실천교실"을 5월부터 11월까지 운영한다.

'맞춤형 Green 실천교실'은 북구 주민들을 대상으로 유용미생물(EM)을 활용한 EM 배양액으로 샴푸바 등 친환경제품을 직접 만들어 보는 체험교실로서, 주민들이 기후변화와 탄소중립의 중요성을 느껴 일상생활에서 탄소중립 친환경 생활을 실천토록 하기 위해 마련하였다.

지나해에는 태전휴먼시아1단지 주민 등 24개 팀 276명이 유용미생물(EM)을 활용하여 화학성분이 포함되지 않은 설거지비 등 일상생활에

서 사용할 수 있는 친환경제품을 직접 만들었다.

기후변화와 탄소중립, 친환경제품 만들기 등에 관심이 있는 주민들은 10명 정도 팀을 구성하고 아파트 회의실 등 체험활동 장소를 확보하여 북구청 환경관리과(☎665-2576)로 신청하면 유용미생물(EM) 전문 강사가 찾아가서 맞춤형 Green 실천교실을 진행한다.

배광식 북구청장은 "이번 실천교실을 통해 많은 주민분들이 친환경제품을 직접 만들어 봄으로써 환경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일상생활에서 친환경 생활을 실천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희망한다"라고 말했다.

김동현/기자

경북도, 함께하는 건강조사, 함께여는 건강내일

2023년 지역사회건강조사 실시, 주민 건강수준 및 건강행태 파악

경북도는 5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 도내 만 19세 이상 성인 2만2천명을 대상으로 '2023년 지역사회건강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지역사회건강조사는 2008년부터 매년 질병관리청 주관으로 지역주민의 건강수준과 건강행태 등을 파악하기 위하여 전국적으로 동시에 시행하는 국가승인통계조사이다.

조사대상은 사전에 표본가구로 선정된 가구원 중 만 19세 이상 성인으로 조사 문항은 흡연, 음주, 신체활동, 영양 등의 건강행태와 고혈압, 당뇨병 등 만성질환 유병 및 관리수준 등에 대한 145개의 설문으로 구성된다.

조사방법은 사전교육을 받은 조사원이 유니폼과 관할 지역 보건소장 직인이 찍힌 조사원증을 패용하고,

선정된 조사가구를 방문해 전자조사표가 탑재된 태블릿PC를 이용하여 조사대상자와 1:1 면접조사로 진행한다.

특히, 매년 8~10월 시행했던 조사가 올해는 5~7월로 앞당겨지면서 조사결과는 12월에 공표되고, 다음해 2월 통계집이 발간될 예정이다.

건강행태 및 이환, 의료이용 등 조사결과를 통해 생산된 건강통계는 올해부터는 매년 11월쯤 산출됨으로써, 이를 토대로 지역에 맞는 보건정책과 다음해의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실행하는데 있어 중요한 지표 자료로 활용된다.

한편, 2023년 4월에 공표된 2022년 지역사회건강조사 결과에 따르면 경북은 고혈압·당뇨병 진단 경험자의 치료율이 전반적으로 증가해 만

성 질환 관리수준이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지속적으로 감소 추세였던 흡연율의 증가와 금연 시도율 격감으로 금연사업에 빨간불이 켜졌으며, 음주행태도 다시 악화되어 보건사업 수행에 있어 건강관련 행태 개선이 절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진현 경북도 복지건강국장은 "지역사회건강조사가 우리지역의 보건사업을 수립하고 평가하는데 활용



되고 건강한 내일을 만들 수 있는 토대가 되는 만큼, 조사가구를 선정된 지역주민들은 조사원 방문 시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윤근수/기자



영양군은 5월 12일부터 14일까지 3일간 내륙에서 동해의 일출을 가장 먼저 볼 수 있는 일월산에서 산나물 채취체험행사를 진행했다.

이번 체험행사는 제18회 영양산나물축제의 일환으로 타 지역 도시민 200여명에게 청정 자연의 선물인 영양 산나물을 홍보하고자 사전 신청을 받았다. 체험행사는 이틀만에 사전 신청이 마감되는 등 시작부터 열기가 뜨거웠다.

처음엔 산나물을 알지 못해 해매는 체험객들도 있었지만, 직접 뜯어서 보여주는 산나물 선별 안내자의

친절한 설명을 들은 곧 산나물을 찾고 뜯는 재미에 빠졌다. 경주에서 온 한 참가자는 "산나물에 대해 알아가는 것만도 너무 좋는데, 산나물도 한 가방 가득 뜯고 또 어디서도 살 수 없는 일월산의 깨끗한 공기도 가슴에 담아 갈 수 있어 너무 좋다"고 말했다.

오도창 영양군수는 "이번 산나물 채취 체험을 통해 도시민들에게 색다른 경험이 됐으면 좋겠고 내년에도 몸과 마음이 즐거운 행사로 다시 한번 찾아뵙겠다"고 말했다.

윤근수/기자

제22회 봉화군수기 직장·단체 테니스대회 성료

송이부 봉화소방서 우승, 은어부 춘양클럽 우승, 190여 명 참가 화합 다져



봉화군은 지난 13일 복합스포츠타단지 실내테니스장과 내성천 테니스장에서 '제22회 봉화군수기 직장·단체 테니스대회'를 개최했다.

봉화군체육회 주최, 봉화군테니스협회 주관으로 열린 이번 대회에서는 관내 직장·단체 27팀 190여 명의 선수가 참가해 그동안 갈고 닦은 기량을 아낌없이 펼쳤다.

이날 대회에서 선의의 경쟁 끝에 송이부(1부) 우승은 봉화소방서, 준우승은 춘양클럽, 공동 3위는 석포클럽과 소천클럽이 각각 차지했으며, 은어부(2부) 우승은 춘양클럽, 준우승은 송이클럽, 공동 3위는 상운

클럽, 백작클럽에게 돌아갔다.

또한 봉화군테니스협회는 다가오는 9월 봉화송이배 전국동호인 테니스대회를 개최하는 등 회원들의 왕성한 활동으로 테니스의 저변 확대 및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박현국 봉화군수는 "올해로 22회째를 맞이하는 봉화군수기 직장·단체 테니스 대회 무사히 개최할 수 있게 되어 기쁘며, 이번 대회를 통해 그동안 못다한 친목을 다지는 교류의 자리가 되길 바란다"라고 전했다.

윤근수/기자

예천군, 출향인들 고향사랑기부제 릴레이 참여 눈길

멀리 있어도 출향인들 애향심은 남달라... 고향사랑기부금 '차곡차곡'

예천군 출신 출향인들이 고향사랑기부제에 잇따라 참여하고 있어 눈길을 끌고 있다.

풍양면 출신 창성소프트텔(주) 김주수 대표가 500만 원을 기부해 예천군에 사랑을 전달했으며 이어 영주시에서 거주하는 성도조경 이송호 대표와 직원 김현주씨와 강동국씨가 각 100만 원의 통 큰 기부를 했다.

그 밖에도 △기양금속대표 배명직 명장 300만 원 △재대구개포면민회 정용춘 회장 300만 원 △㈜가람이앤씨 구광식 대표이사 100만 원 △(주)위닉스 윤희중 대표이사 100만 원 △세무법인 길 황봉길 세무사 100만 원 △(주)대건 토목설계업체 노중원

대표 200만 원 △창주이앤씨 박서환 대표 100만 원 △재경예천군민회 조동희 부회장 200만 원 △데이터솔루션주식회사 유호중 대표 100만 원 △예천을 출향인 박순례 100만 원 △용문면 출향인 이동혁 200만 원, 권용하 100만 원 △유천면 출향인 심원연 100만 원 △용곡면 출향인 안효식 100만 원 △개포면 출향인 김민겸 100만 원, 이준오 100만 원 등 예천군 발전에 힘을 보탤 예정이다.

김학동 군수는 "멀리서 고향인 예천군을 응원하는 출향인들의 기부 릴레이가 이어지면서 고향사랑기부제가 순항 중"이라며 "고향사랑기부제는 지역과 기부자 모두가 윈윈할 수 있는 제도로 활성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윤근수/기자



경상북도 - 엠브레어 항공산업 협력 업무협약 체결

2026년 개항 울릉공항에 브라질산 소형 제트여객기 취항 가능성 밝혀

오는 2026년 개항 예정인 울릉공항 하늘길에 브라질산 소형 여객기가 운항될 전망이다. 경상북도는 15일 포항경주공항에서 세계 최대 중소형 항공기 제작사 엠브레어(Embraer)사와 항공산업 협력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이철우 경북도 지사와 남한권 울릉군수, 마틴 홀츠(Martyn Holms) 엠브레어사 총괄 부사장(CCO), 마시아 도너(Marcia Donner) 주한 브라질 대사, 이미애 한국공항공사 부사장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

엠브레어사는 150석 이하 중소형 항공기 제조 분야에서 약 30% 정도의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는 세계적인 항공기 제조사이다. 약 8,000대 이상의 항공기를 납품했으며, 연 매출은 50억달러(6조5000억원) 규모다.

경상북도와 엠브레어사는 이번 협약을 통해 ▲경북도 항공산업에 대한 홍보활동 ▲항공산업 관련 정보 및 모범사례 공유를 위한 컨설팅 및 자문 ▲항공산업 관련 경북도 내 정비 및 훈련지원시설 설립과 개발 등에 상호 협력한다.

이날 협약식 후에는 엠브레어사



의 주력 제트여객기인 E190-E2에 탑승자 80여명이 탑승해 80분간 울릉도를 순회하고 돌아오는 시범비행이 이어졌다. 엠브레어에 따르면 해당 기종은 울릉공항과 같은 활주로 길이 1,200m의 단거리 이착륙이 가능한 제트기다. 좌석은 옵션에 따라 96~114석이다. 항속시간은 최대 6시간으로 스위스를 비롯한 유럽 선진국은 물론 싱가포르항공에서 선택한 경제성과 안전성이 입증된 기종이다.

또한 시범비행과 더불어 포항경주

공항 활주로 중 절반 길이인 1,066m의 활주로 일부를 활용하여, 울릉공항 활주로로 가장한 시험 이착륙을 성공적으로 마쳐 해당 기종의 향후 울릉공항 취항에 청신호를 밝혔다.

남한권 울릉군수는 울릉공항 개항과 함께 도래하는 울릉관광객 100만 시대에 대비하여 교통 및 숙박 등 관광인프라 관련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울릉도가 세계적인 관광지로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울릉군의 역량을 집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정현중/조감제/기자

경주시, 대표 야간관광 프로그램 '신라달빛기행' 스타트

월정교, 계림, 첨성대까지 관광명소를 테마로 동부사적지의 밤 밝혀

경주의 대표 야간관광 프로그램인 '신라달빛기행' 지난 13일을 시작으로 10월 14일까지 본격 운영된다.

신라문화원이 주최하는 신라달빛기행은 지난 1994년 칠불암 달빛기행을 시작으로 현재까지 첨성대(별), 월정교(달) 등 다양한 문화유산을 주제로 경주의 아름다운 야경을 활용한 체험형 힐링 관광상품이다.

올해는 그간 진행된 행사와는 달리 달빛기행에 앞서 13시 30분부터 무열왕릉과 서악동고분군, 불국사를 방문해 문화재 답사는 물론 음악회 감상과 사물소리명상 등을 추가하는 특별 이벤트도 5·10월 펼쳐진다.

프로그램은 17시 30분부터 21시 까지 20명에서 40명까지 한 팀을 이뤄 운영된다. 월정교 안내부스에서 백 등을 배부 받아 계림, 월성해자, 첨성대까지 달빛을 따라 별자리 스킨프린팅, 셀프 포토존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진행된다.

또 트레킹 곳곳에는 지역 예술인의 공연 버스킹과 전통주 부스 '달빛주막', 선덕여왕과 요석공주와의 인종상 이벤트가 준비돼 있다.

더불어 지역 상인들의 협업을 참여자들이 즐길 수 있는 '별뿔뿔 플리마켓'을 비롯한 트레킹이 끝난 후



지역 예술인들의 국악, 무용, 클래식 등 전통과 현대가 공존하는 '월정교 달빛콘서트' 공연도 열린다.

행사는 5월 13일, 6월 3일, 7월 1일, 8월 5일, 9월 2일, 10월 14일 총 6회 개최되며, 참가비는 1만원이다. 단 5·10월은 답사코스가 포함됨에 따라 2만원이다.

행사 참여는 신라문화원(www.silla.or.kr) 홈페이지 통한 사전접수와 당일 현장접수로 이뤄진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내용은 신라문화원(054-777-1950)으로 문의하면 된다.

남미경 관광컨벤션과장은 "매년 호

평을 받아온 신라달빛기행이 올해도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며 "많은 참가자들이 동부사적지를 거닐며 신라의 밤이 주는 운치를 만끽하고 지친 몸과 마음을 위로받는 힐링의 시간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경주시는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첨성대, 월정교 등 관광명소를 대상으로 10월 28일까지 총 17회 국악여행 프로그램은 물론 교촌한옥마을 광장에서 9월 30일 까지 총 13회 '신라오기' 마당놀이극도 선보인다.

윤태용/기자

화순군, 5·18민주화운동 제43주년, 국립5·18민주묘지 참배

홍남순 변호사와 조정남 선생 등 묘지 찾아, 역사와 민주주의를 기리다



화순군은 5·18민주화운동 제43주년을 맞아, 15일 오전 5·18민주유공자 및 군의회 의원, 군청 공무원들과 함께 국립 5·18민주묘지를 찾았다. 참배에 앞서 구복규 화순군수는 5·18민주묘지 입구 '민주의 문'에서 방명록을 남기고 5·18민주묘지 관계자의 안내를 받아 참배를 이어갔다. 추모탑에 헌화와 분향을 마친 후 묘역에 안장된 59기의 화순 출신 안장자 중 홍남순 변호사와 조정남, 행방불명자 최영환 선생의 묘지를 방문했다. 인권변호사이자 인권운동가였던 홍남순 변호사는 5.18 당시 군부독재의 탄압에 맞서 민주화운동을 이끈 인물이다. 참배를 마친 구복규 화순군수는 "민주화운동의 희생자들에 대한 깊

은 경의를 표하며, 그들의 노력을 통해 이루어진 현재의 민주주의를 계속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 우리 모두의 책임임을 재확인했다"며, "앞으로도 그 뜻을 이어나가 민주, 인권, 평화의 숭고한 가치를 군민과 함께 계속 발전시키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화순군 관계자는 "화순군은 민주주의 발전을 위해 헌신하신 5·18민주유공자들을 위하여 보존 수당을 인상하는 등 유공자들의 헌신에 보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라며 "앞으로도 이들의 헌신과 노력이 헛되지 않도록 지원 방안을 모색하고 실행에 옮기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윤경호기자

김영록 전남도지사, "무안군, 민간-군공항 이전 대승적 수용을"

담화문...서남권 발전위한 전향적 검토·피해 상쇄할 지원책 마련 강조

김영록 전남도지사는 15일 "무안국제공항을 국토 서남권 관문공항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무안군이 광주 민간공항과 군공항 이전을 대승적으로 수용하길 바란다"고 호소했다.

김영록 지사는 이날 도청 브리핑룸에서 '무안국제공항 활성화와 서남권 발전을 위해 도민께 드리는 담화문'을 발표, "무안군민의 희생만을 강요하지 않겠다. 이전지역 피해를 충분히 상쇄할 획기적 지원대책 마련에도 온 힘을 쏟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전남도는 그동안 무안국제공항 활성화를 위해 활주로 연장, 여객청사 확충, 정기노선 지원 등 여러 노력을 기울였다. 또 2조 5천억 원 규모의 호남고속철도 2단계 사업과 광주, 전남, 경남 서부권 주민까지 이용할 수 있는 경전선과 트라이앵글 순환철도망 구축에도 힘을 쏟고 있다.

그러나 여러 노력에도 무안국제공항 이용객은 2019년 90만 명에서 코로나 등으로 지난해 4만 6천 명을 기록하고 최근 6년간 누적적자



가 930억 원에 달했다. 국제선과 국내선의 연계가 안 돼 공항 이용에 제약이 많은 것이 가장 큰 이유로 꼽힌다.

김영록 지사는 "무안국제공항과 광주 민간공항 통합이 국가계획에 반영돼 있지만 군 공항 이전 문제로 통합되지 못하고 있어 하루빨리 통합을 통해 항공 이용 수요를 확보하고, 더 많은 국내외 노선을 취항해 5년 내 정상 궤도에 올려놓아야 한다"며 "2025년 완비되는 민간공항 이전을 위한 기반시설 등을 고려해 광주 군 공항의 무안국제공항 이전도 전향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무안국제공항에 국내선과 군

공항이 들어서면 담보상태에 있는 무안군 역점사업인 항공산업과 케이(K)-푸드융복합산업 조성에 청신호가 켜지고, 재생에너지 전용 국가산업단, 데이터센터, 공공기관 유치, 미래신도시 건설, 서남권 관광 활성화 등 서남권 발전 프로젝트 추진의 발판이 마련될 것이라는 게 김영록 지사의 판단이다.

김영록 지사는 "무안군민들의 군공항 이전에 따른 걱정도 잘 알고 있다"며 "소음 완충지역 363만6천여㎡(110만 평) 확보와 완충지역을 벗어난 지역에 대한 추가 대책 마련, 설명회를 통한 군 공항과 관련된 정확한 정보 제공 및 정부·광주시·전문가와 협력해 최적의 해결방안 마련, 이



전지역의 피해를 충분히 상쇄할 획기적인 발전방안과 지원대책 마련에도 최선을 다하고, 무안시 승격을 추진하는 지방자치법 개정도 전남도가 나서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무안국제공항이 활성화돼야 관광객이 늘고 기업 투자도 확대될 수 있다"며 "무안군이 서남권 발전을 위해 광주 민간공항과 군 공항이 함께 이전되는 것을 대승적으로 수용하고, 더 나은 미래로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영록 지사는 또 "무안군민의 희생만을 강조하지 않겠다"며 "도민들께서 미래를 객관적으로 잘 살펴봐 주길 바라고, 앞으로 정부, 전남도, 광주시가 함께하는 군 공항 이전 관련 설명회에서 충분한 의견을 개진해 줄 것"을 요청했다.

김영록 지사는 "군 공항 이전 문제 해결과 무안국제공항 활성화를 통해 광주·전남 상생발전의 전기를 마련하고, 무안국제공항이 광주·전남의 관문 국제공항으로 활성화되고 발전돼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정해명기자

무안군 "워커블시티 무안 선포식 및 제1회 무안산책로 걷기대회"성황리 개최

지난 5월13일 무안군 남악자연거공원에서 '워커블 시티 무안 선포식 및 제1회 무안산책로 걷기대회'가 1,200여 명의 군민이 참여한 가운데 성황리에 개최됐다. 삼향읍 주민자치센터 동아리의 통기타, 오카리나, 합창 공연으로 식전행사가 시작됐으며, 걷기 좋은 도시 워커블시티 무안 선포식으로 본격적인 시작을 알렸다. 김산 무안군수는 이날 기념사를 통해 "군민 일상생활 곳곳에 지역특화형 산책로 조성으로 군민 누구나 걷기 쉬운 환경을 만들고, 군민 걷기 운동지도자 양성과 군민 걷기 동아리 육성 등 보행문화도 확산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본격적인 걷기에 앞서 전문 강사의 지도아래 몸풀기 체조와 대한건기협회 소속 걷기지도자의 올바른 걷기 자세 교육과 인솔로 걷기대회가 시작됐다. 환경을 지키기 위한 쓰담 달리기

(플로깅) 행사까지 함께 한 이날 행사에는 300여 명의 학생들이 가족과 함께 참여하여 가족 단위 참가자들이 눈에 띄게 많았다. 남악자연거공원에서 남악수변공원 풍차가 있는 데크까지 왕복 1시간 동안의 산책로를 걷는 동안 참가자들은 탁 트인 영산강과 수변공원 곳곳에 조성된 꽃단지, 데크를 걸으며 아름다운 5월을 한껏 만끽했다. 이날 행사에 참가한 주민들은 한결같이 "오늘같이 몸과 마음이 치유되는 걷기대회 행사가 매년 지속됐으면 좋겠다"며 만족감을 표현하기도 했다. 무안군에서는 앞으로도 걷기대회 행사를 지속해서 개최함은 물론 군민들의 보행환경 개선과 보행문화 확산을 위한 다양한 시책을 개발하여 군민들이 더 살기 좋은 무안 만들기에 더욱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광남기자

2019년부터 매년 2천만 원씩 총 1억 원 기탁, 96년부터 꾸준한 나눔 이어

강진군의회 위성식 의원은 12일, 강진군청 군수실에서 이웃사랑 나눔 실천을 위한 사업비로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2천만 원을 기탁했다. 위성식 의원은 2019년에 강진4호(전남 80호) 아너 소사이어티 회원으로 가입해 매년 2천만 원씩, 현재까지 총 1억 원을 기탁하며 나눔을 실천해왔다. 아너 소사이어티는 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성숙한 기부문화 확산을 위해 2007년 설립한 고액 기부자 클럽으로, 1억 원 이상의 기부 또는 5년 이내 1억 원 이상을 납부하기로 약정할 경우 회원이 될 수 있다. 지금까지 기탁된 성금은 사랑의 집 짓기, 사회복지시설 물품(에어컨, 안마의자 등) 및 차량지원, 다문화가정 고향방문, 저소득층 생계비 지원, 김장나눔 지원 등 강진군의 소외계층에 전달됐으며, 이번 성금도 전남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지정 기탁되어 어려운 이웃에게 지원될 예정이다. 위 의원은 "5년 동안 아너소사이



어티로서 나눔을 이어오면서 주변의 따뜻한 변화를 몸소 느꼈고, 가족도 함께 가입해 이웃사랑을 실천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지역의 복지 향상에 힘을 보태겠다"고 전했다.

강진원 강진군수는 "지역사회의 다양한 분야에서 나눔을 전하고 계시는 위성식 의원님께 감사드리고, 이웃사랑 실천으로 지역의 복지에

앞장서 주시는 노력에 힘이 되도록 사각지대 없는 맞춤형 돌봄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위성식 의원은 1996년부터 어려운 이웃들에게 안경, 시계 등 지원을 시작으로 꾸준히 나눔을 실천해 지역사회 나눔 활동의 중추적 역할을 하고 있다.

추윤호기자

화순군, 관광기념품 공모전 개최

2023년 화순군 관광기념품 공모전

2023. 6. 26.(월) ~ 6. 30.(금) / 5일간

종류	대상	대상	대상
공모기간	2023. 6. 26.(월) ~ 6. 30.(금)	2023. 6. 26.(월) ~ 6. 30.(금)	2023. 6. 26.(월) ~ 6. 30.(금)
공모대상	전국	전국	전국
공모분야	관광기념품	관광기념품	관광기념품
공모주최	화순군	화순군	화순군
공모주관	화순군	화순군	화순군
공모주최	화순군	화순군	화순군
공모주관	화순군	화순군	화순군

http://chunhyang.org

빛을 그리다

2023.5.25 ~ 5.29

제93회 춘향제 Chunhyang Festival

주최 | 남원시
주관 | 제93회 춘향제전위원회 · 후원 | 전라북도

해양경찰청, 해양쓰레기 없는 깨끗한 바다, 우리가 앞장 선다!

해양경찰청, 바다의 날 맞이 해양환경 보전 힘써

해양경찰청은 해양쓰레기 없는 깨끗한 바다를 만들기 위해 오는 5월 31일 제28회 바다의 날을 맞아 15일부터 6월 23일까지 6주간 본청, 지방청, 전국 20개 지방경찰서에서 해양환경 보전을 위한 정화 활동 및 홍보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바다의 날은 해양 국가로서 국제환경의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능력을 기르고 바다 및 해양 개발의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하여 제정한 날로, 올해 28주년을 맞이한다.

해양쓰레기는 환경오염 피해뿐만 아니라 페어구, 페르프 등에 의한 선박 프로펠러 감김 사고도 매년 500여 건 이상 발생하고 있어 선박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 (출처: 2022 해양경찰 통계 연보)

이에 해양경찰청은 도서 지역, 수중 침적 해양쓰레기 등 수거가 어려운 지역을 대상으로 해양수산부, 해군 등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해양쓰레기 수거를 확대하는 한편, 지속 가능한 해양환경 보전을 위해 주요 탄소흡수원인 염생식물 군락지 조성, 해양쓰레기 저감을 위한 해변정화, 쓰담달리기 등 시민사회가 참여하는



지역별 특색있는 실천운동을 실시한다.

특히, 어선에서 발생하는 플라스틱 폐기물로 인한 해양오염 예방을 위해 해수부, 수협, 제주도개발공사 등과 협업으로 어선 생수병 수거 후 자원으로 재활용하는 '우생순 프로젝트'를 권역별 추진한다.

아울러 미래세대인 청소년을 대상으로 해양환경 보전 교육을 실시하고 많은 국민이 바다의 중요성에 대

해 접할 수 있도록 다양한 홍보도 진행한다.

조현진 해양오염방제국장은 "올해 해양경찰 창설 70주년을 맞이하여 앞으로도 해양쓰레기 없는 깨끗하고 안전한 바다를 만들기 위해 정화 활동을 비롯해 다양한 활동을 추진하겠다"며 "우리 바다를 지키기 위해 많은 국민들의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최만식기자

전남도경찰청, 합성마약 '야바'를 전남·광주·전북 지역에 판매해온 태국인 총책 등 일당 14명 검거

전남경찰청, 외국인 마약사범 검거에 총력을 기울이는 중

전남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는, 전남경찰청은 5월 12일 전남·광주·전북 일대에 합성마약 '야바'를 판매한 불법체류 태국인 일당 14명을 마약류관리법위반혐의로 검거해 구속했다.

위 조직의 총판매액 A는 2023년 2월부터 태국에 거주하는 B에게 SNS로 연락해 '야바'를 구입해 왔으며, B는 마약대금이 입금되면 은닉장소를 알려주는 일명 던지기 수법으로 마약을 공급해 온 사실을 확인했다.

총판매액 A는 야바 10,000정을 공급받아 전남·광주·전북에 있는 중간판매책 등 7명에게 판매했고, 이 마약은 호남지역 농·어촌과 공장에서

노동자로 일하는 태국인들에게 공급되어 투약한 사실도 함께 확인하고 모두 검거했다.

전남경찰청은 검거 과정에서 마약사범들이 소지하고 있던 야바 1,198정과 필로폰 1.4g 및 투약기구 총 14점을 압수했다.

향후 전남경찰청에서는, 금번 수사를 통해 호남지역 태국인 마약 공급 일당을 대부분 검거하는 성과를 거두었으나 태국에 거주하는 총책 B를 검거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며, 호남지역에 퍼져있는 외국인 마약사범 검거에 더욱 집중할 예정이다.

정해명기자



서귀포보건소, 양귀비·대마 재배단속 실시

서귀포보건소는 불법 마약류 확산을 막기 위한 양귀비·대마 재배에 대한 단속을 지난 5월 11일부터 7월 말까지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산책길, 경작지, 하우스 등을 집중단속한다.

양귀비 개화기와 대마 수확기가 다가옴에 따라 일부 농·어촌 지역에서 배양기와 진통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잘못 알려져 민간요법 차원에서 소규모 재배하는 사례가 있다.

최근에는 양귀비·개양귀비 중간단계인 양귀비가 제주지역에 발견됨에 따라 비닐하우스, 텃밭, 정원 등에 불법 재배하는 행위에 대해 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다.

양귀비와 대마를 몰래 파종하거나 불법 재배하다 적발될 경우, 마약류관리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서귀포보건소 관계자는 "양귀비나 대마 경작행위는 범죄라는 인식을 갖고 시민들의 적극적인 감시가 필요하다"며 "불법마약류 파종행위에

대해 앞으로도 지도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한편 불법 재배 또는 자생하고 있는 양귀비나 대마를 발견했을 시, 서귀포보건소 의약관리팀 또는 경찰서로 신고를 당부했다.

황지원기자



제62회 The 62nd JeollaNam-do Sports Festival
전라남도체육대회
 2023. 5. 12(목) ~ 5. 15(일) (4일간)
 완도군 공설운동장 외 보조경기장

【주최】전라남도체육회
 【주관】제62회 전라남도체육대회 조직위원회
 【후원】전라남도, 전라남도교육청, 완도군

제31회 The 31st JeollaNamdo Sports Festival For The Disabled
전라남도장애인체육대회
 2023. 5. 24(수) ~ 5. 26(금) 3일간
 완도군 공설운동장 외 보조경기장

주최 | JNSAO 전라남도장애인체육회
 주관 | 제31회 전라남도장애인체육대회 조직위원회

강릉시, 2023년 수입 수산물 원산지 표시 특별점검

6월 30일까지 거짓표시, 미표시, 표시방법 위반 등 준수여부 확인

강릉시는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결정으로 수입 수산물에 대한 안정성 우려가 커짐에 따라 6월 30일까지 수입 수산물 원산지 표시 특별점검을 추진한다.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과 함께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수입 수산물을 취급하는 유통·소매업체를 대상으로 원산지 표시 위반 빈도가 높은 수입 수산물에 대해 집중 점검하겠다는 방침이다.

일본에서 수입하여 판매되는 활참돔, 활가리비, 활우렁छ이와 원산지 표시 위반 주요 품종인 냉동오징어, 활낙지 등에 대한 거짓표시, 미표시, 표시 방법 위반 등 원산지표시법 준수 여부를 확인한다.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고,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에는 5만 원 이상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관련 법 개정에 따라 오는 7월 1일부터 음식점 수산물 원산지 표시 대상에 가리비, 방어, 우렁छ이, 부세, 전복 총 5개 품목이 추가되어 해당 품목의 원산지 표시 의무를 이행하도록 적극 홍보할 예정이다.

강릉시 관계자는 "이번 특별점검을 통해 소비자들이 믿고 먹을 수 있는 소비 환경을 조성하고, 철저한 원산지 표시 관리로 수산물 먹거리에 대한 안전을 확보하겠다"고 전했다.

이등원기자

보은군, 불법주정차 특별단속 기간 운영

보은군은 불법주정차로 인한 주민 불편 및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오는 26일까지 '불법주정차 특별단속 기간'으로 정하고 주정차 단속을 실시한다고 16일 밝혔다.

군에 따르면 이번 주정차 특별단속 구간은 보은읍 중앙사거리 ~ 동다리 구간과 평화약국사거리 ~ 보은시외버스터미널 구간 등 2개 구간으로 이곳에는 불법주정차 차량으로 인해 교통체증과 주민들의 통행 불편이 가중되고 있는 구간이다.

군은 특별단속 기간동안 불법주정차 단속용 CCTV와 이동차량을 이용해 △교통 흐름에 방해되는 차량 △보행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주차행위에 대해 집중단속하고 길모퉁이, 횡단보도, 인도, 대각선주차, 2열주차 등 불법 주정차 차량에 대해 과태료(4만원~12만원)를 부과할 방침이다.

윤상문 군 교통팀장은 "불법주정차로 인한 교통사고 유발과 교통흐름

방해 등 불편 사항이 많이 발생되고 있다"며 "이번 특별단속을 통해 주정차에 대한 성숙한 군민 의식 제고와 올바른 주차 질서 확립 등 올바른 교통문화 정착을 위해 군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고 말했다.

고정화기자



충남도 천안·아산 강소특구 2022 연차평가 ‘최우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주관 평가서 기술이전 및 출자 등 모든 평가 지표 초과 달성

충남도는 천안·아산 강소특구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주관 2022년도 강소특구 연차평가에서 최우수 등급을 획득했다고 15일 밝혔다. 과학부는 특구의 사업 성과, 특구 구성원의 만족도,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특구발전에 관한 기여도 등을 해마다 평가하고 있다. 이번 평가에서 천안·아산 강소특구는 기술이전 및 출자 33건, 연구소기업 설립 9건, 신규창업 14건, 육성기업 매출액 186억원, 일자리 창출(고

용수) 175명, 투자연계 35억원 등 모든 평가 지표를 초과 달성했다. 특히, 대·중견기업 연계 프로그램을 통해 육성기업 기술의 수요처로 중견기업을 연계했고, 육성기업은 이를 기반으로 투자유치와 제품 양산을 위한 공장 설비 및 인력을 확보하는 성과를 거뒀다. 이와 함께 글로벌 진출 지원 기반 구축을 위해 글로벌 진출 전문 엑셀러레이터(AC) 및 전문지원기관 등과 글로벌 협업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글로벌 진출을 위한 특화 프로그램을 운영해 싱가포르와 베트남 등 글로벌 진출을 지원하는 우수 사례를 창출했다. 충남 과학기술 투자 협의회와 미래 자동차 투자심사역 협의회를 신설해 운영하는 등 강소특구 중심의 전문 네트워크를 구축한 점도 높은 평가를 받았다. 아울러, 아이피(IP)기반 분석 및 기술 간담회 등을 통해 입주기업의 수요를 파악해 다양한 투자기관과의 협

력(10개 이상)으로 투자 및 전문컨설팅을 지원하는 등 입주기업 분석을 통한 지역수요 분석 및 맞춤형 해결을 추진한 것도 좋은 평가를 받았다. 유재용 도 산업경제실장은 “천안·아산 강소특구는 우리나라 미래 산업 패러다임을 이끌 새로운 에너지라며 “올해는 천안·아산 강소특구가 보유한 전문 네트워크를 활용한 글로벌 스타트업 육성에 더욱 박차를 가하겠다”고 말했다. 최정근기자

태백시 황지동 행정복지센터, 황부자 농장 가꾸기 추진



황지동 행정복지센터는 지난 11일 민·관 협력으로 황부자 농장 가꾸기 사업을 추진했다고 밝혔다. 이날 황부자 농장 가꾸기에는 황지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주민자치위원회·통장협의회·바르게살기위원회·새마을협의회·황부자식구봉사단 등 6개 단체가 참여해 300여㎡의 면적에 옥수수 1,500포기를 심었다. 오는 7월과 10월 중 농작물 수확으로 얻은 수익금은 취약계층을 위해 사용될 계획이다. 황부자 농장에서는 매년 1백여만원의 수익을 거두고 있으며, 관내 어려운 이웃을 위해 건강음료 지원, 겨울철 김장 나눔, 삼계탕 지원 사업 등에 사용하고 있다. 이경수 황지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장은 “매년 민·관 협력 사업으로 추진하는 황부자 농장 가꾸기 사업이 잘 운영되어 어려운 이웃들에게 조금이나마 힘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양범모 황지동 주민자치위원장은 “황부자 농장은 정이 넘치는 황지동을 만들어가는 화순분”이라며, “모든 회원들이 농장 가꾸기에 보람을 느낀다”라고 전했다. 유상근기자

“전국-노래자랑”...단양 찾는다

42년 역사의 국내 최장수 예능 프로그램 KBS 전국노래자랑이 대한민국 관광 1번지 단양을 찾는다. KBS 전국노래자랑 단양군 편은 해마다 열리는 소백산철쭉제와 신단양이주 30주년을 축하하고 기념하기 위해 개최한 2015년 이후 8년 만이다. MC 김신영의 활기차고 재치 있는 입담과 함께 초대 가수 송대관, 김혜연, 윙크, 류지광, 나에원 등의 흥겨운 축하공연이 준비돼 있다. 녹화로 진행되는 전국노래자랑의 본선은 6월 3일 오후 3시부터 단양도전리 하상주차장 특설무대에서 펼쳐진다. 예심은 6월 1일 오후 1시 단양문화예술회관에서 1차 무반주와 2차 노래방 반주를 거쳐 본선에 진출할 15명 내외가 본선에 오를 예정이다. 접수는 오는 25일까지 읍·면사무소나 단양군청 문화예술회관에서 받는다. 기간 내 접수하지 못한 사람은 예심 당일 12~13시까지 문화예술회관 현장 신청할 수 있다. 대한가수협회와 한국가수협회, 한국연예협회 등 등록된 기성 가수를 제외한 단양군민이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전국노래자랑 본선이 열리는 3일은 철쭉제 기간이라 다양한 길거리 공연과 전시프로그램 예정되어 있어 재미를 더할 것으로 보인다. 군 관계자는 “소백산철쭉제 성공적 개최를 기념해 열리는 ‘KBS 전국노래자랑’에서 많은 군민이 기와 실력을 마음껏 발휘하기를 바라며 행사를 주변 안전관리와 질서 유지에 각별히 신경 써서 모든 군민들이 즐겁고 안전하게 즐기는 행사가 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전국노래자랑 단양군 편은 오는 8월 경 12시 10분 KBS-1TV를 통해 전국에 방영될 예정이다. 최만식기자

박경규 아산시장 “정부예산 확보에 총력을 기해달라” 당부

15일, 주간 간부회의서 “정부예산 확보 선제적 적극적 대응” 주문

박경규 아산시장은 15일 시청에서 열린 주간 간부회의에서 “2024년 정부예산 편성 순기에 맞춰 선제적이고 적극적인 대응으로 민선 8기 주요 핵심 사업비 확보에 만전을 기해달라”를 주문했다. 박 시장은 국·소장 등이 참석한 이날 회의에서 “2024년 정부 예산안이 5월 말 기재부로 제출된다. 그 전에 각 부서에서는 중앙부처 국비 요청 사업에 대하여 진행 상황과 반영 여부를 자세히 검토해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길 바란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시장은 이어 “정부 부처에서 우리 시 사업 예산이 기재부로 넘어가면 이른 시일 안에 기재부를 방문해 예산편성 관계자와 국회의원을 만나겠다”면서 “민선 8기 역점사업에 대한 예산 확보가 될 수 있도록 해당 부서에서는 방면에 필요한 자료를 충실히 준비해 달라”고 지시했다.



아산시의 2024년도 정부예산 확보 목표액은 총 1조원으로 2023년 최종 확보액 885억원 대비 1145억원이 증가한 금액이다. 이에 아산시는 정부예산 확보를 위해 정부 정책 방향에 맞춘 대응 논리를 개발하고 부처 심의 단계부터 충남도와 공조하는 등 단계별 대응 전략을 모색해 나갈 계획이다. 김원호기자

조길형 충주시장, 도심침수예방사업 공사의 실효성 확보 나서

간결한 시민 홍보, 하자 없는 결과 만들기, 부서 간 긴밀한 협력 등 강조

조길형 충주시장이 도심침수예방사업의 추진현황을 확인하며 공사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포인트를 제시했다. 조길형 시장이 주재한 15일 현안 업무회의에서는 ‘하수도정비 중점관리지역 도심침수예방사업’의 사업개요, 세부 추진계획, 시민 홍보 등을 확인하고 부서 간 협력을 도모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 조 시장은 “시민들에게 있어 당장에 가장 중요한 정보는 공사의 취지, 추진 현황 등보다도 공사를 언제 어디서 어느 정도의 기간

동안 시행하는가 하는 점이다”라며 “시민들이 궁금해하는 내용을 간결하게, 본격적인 공사 시작 전에 전달될 수 있도록 조치해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너무 많은 내용을 추상적이고 복잡하게 전달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라며 “해당 장소에서 무슨 일이 언제까지 일어나는지 현장 안내판을 설치해 확인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지시했다. 이어 시민불편 최소화 계획과 관련해 “공사를 진행하면서 불편이 아주 없을 수는 없다”라며 “불가결한

불편에 최대한으로 보상하는 방법은 공사 결과의 하자가 없도록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공사 이후 부족한 부분이 발생되거나 예상치 못한 부작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꼼꼼히 점검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특히, “해당 공사와 중첩되거나 협조 가능한 사업의 경우 부서 간에 미리 긴밀한 소통을 거쳐 협력 방안을 확보하는 등 업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데에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덧붙였다. 최정근기자

'그 아픔까지 사랑한 거야' 가수 조정현, 원주시 고향사랑기부제 동참



올해 1월 1일부터 고향사랑기부제가 본격적으로 시행된 가운데, 원주 발전을 위한 통 큰 기부가 이어지고 있다. 지난 15일 ㈜JH엔터테인먼트 조정현 대표이사(가수)가 고액 기부자로 나서, 원주시청을 방문하여 고향사랑기부금 500만원을 쾌척하고 기부한 금액의 30%를 담례품으로 받았다. 조정현 대표는 한양대학교 동문인 지역기업 네이처홀피스 대표의 협조를 받아 원주시에 ㈜JH엔터테인먼트를 설립하고, 시민 문화향유와 지역인재 양성을 위해 매달 1~2회 귀래면 분카페에서 문화공연을 펼치고 있다. 이 밖에도 원주 출신의 동해철강

2023. 6. 3.(토) 오후 3시
도전리 하상주차장 특설무대

강원도-국토교통부, 지역발전 위한 공동협력 파트너십 구축

김진태 강원도지사는 5월 15일 강릉시청에서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을 만나 강원도 지역발전을 위한 긴밀한 공동협력 파트너십을 구축하기로 결의했다. 강원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 회의 후 46일 만에 두 손을 다시 맞잡은 김진태 지사와 원희룡 장관은 지역발전 현안을 중점 논의했다. 1) 강릉 천연물 바이오 국가산단 최종 선정 조속 추진 김진태 지사는 KIST 강릉분원 천연물연구소 등 강릉의 천연물 바이오 산업 경쟁력을 강조하며, 국가산단 최종 선정 절차가 신속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국토부의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다. 2) 도내 주요 SOC 사업 추진 김진태 지사는 ▲GTX-B 춘천 연장, ▲용문~홍천 광역철도, ▲포천~철원 고속도로 ▲원주 부론 국가산단 설치 및 영동고속도로 부론 IC 설치 등 주요 SOC 사업 추진과 함께, 제6차 국도·국지도 건설계획

(2026~2030)에 주요 사업 반영을 건의했다. 김진태 지사는 지난 3월 강릉시 천연물 바이오 국가산단 지정 지원을 요청했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6월 11일이면 강원도가 강원특별자치도로 태어난다”라고 하면서 “대한민국의 자연과 생명을 기반으로 미래 먹거리를 힘차게 만들어 나갈 강원도의 비전을 진심으로 축하하고 응원한다”라고 하며 국토부는 강원도의 협력 파트너로서 강원도 발전 현안 해결을 위해 긴밀히 협력해 나가겠다고 화답했다. 김진태 지사와 원희룡 장관은 회의 직후, 강릉시청에 설치된 지진가속도계측기 실태를 확인하면서 동해안 지진대응 상황을 긴급 점검했다. 한편 이날 강원도, 국토교통부, 강릉시, 강릉국가산단단지 후보지 시행사로 결정된 LH와 GDC가 협약을 맺고 향후 국가산단단지 건설에 필요한 절차를 신속히 추진하기로 했다. 이원영기자

진천·음성 광역폐기물 재활용선별시설 증설사업, 이달 준공

진천·음성군에서 추진한 광역폐기물 재활용선별시설 증설사업이 이달 말 준공한다. 충북혁신도시를 중심으로 증가하는 인구에 따라 함께 늘고 있는 생활폐기물 처리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양군의 공동투자 결과물이 새 모습을 선보이게 된 것이다. 음성군 맹동면 원중로 778에 기조성돼 있던 재활용선별시설은 1일 처리용량이 15톤 정도로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생활폐기물을 소화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이에 양군은 국비 48억 원, 도비 5억 원을 지원받고 나머지 46억 원에 대해서는 두 지역 폐기물 반입 비율에 따라 부담하는 내용을 담은 시설 증설을 결정했다. 총 99억 원이 투입된 이번 사업은 지난 2021년 7월 착공해 연면적 1,873.63㎡로 조성됐으며 파봉기, 발리스틱 선별기, 플라스틱 자동선별기 등 자동화 시설을 갖추고 있다.

이번 증설을 통해 1일 재활용 선별능력이 기존 15톤에서 40톤으로 약 166%가 증가하게 됐다. 이번 재활용 쓰레기 선별 일일 처리량 증가로 잔재물 소각과 매립량을 감소시켜 처리비용을 절감하고 환경오염원까지 줄일 수 있어 더 쾌적한 도시환경을 갖출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군은 시설 증설에만 그치지 않고 더 철저한 분리수거를 통해 재활용 가능 자원을 최대한 회수할 수 있도록 지역주민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는 교육과 홍보 활동을 이어나갈 방침이다. 준공에 앞서 시설점검을 위해 현장을 찾은 송기섭 군수는 “해당 시설이 ESG 군정 운영을 추진하고 있는 진천군의 주요 인프라로 잘 활용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재활용 가능 자원을 적극적으로 선별·처리함으로써 탄소중립 사회 실현과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뤘다”고 말했다. 최만식기자

충북, 수소산업의 중심(忠=中+心)에 선다

국내최고의 수소산업 기반 마련을 위한 민·관 협력 간담회 개최

충북도는 5월 16일 도청 대회의실에서 국내 주요 수소 기업·기관 14개사의 임원 및 관계자 30여명 초청하여 간담회를 열었다.

김명규 경제부지사 주재로 개최된 이날 행사에는 SK E&S, 현대자동차, 한화솔루션, 현대모비스, 코오롱글로벌 등 9개사와 한국가스안전공사, 한국수자원공사, 한국가스기술공사, 수소융합얼라이언스 등 5개 기관에서 참석하여 충북의 수소산업 발전을 위한 정책건의와 신규사업을 논의하는 자리를 가졌다.

수소산업은 엄청난 파급효과를 불러오는 미래산업이다. 맥킨지 보고서에 따르면, 2050년 세계 수소 시장 규모가 2조5000억달러(약 3295조원) 수준으로 성장하는 등 3000만개 누적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전망했다.

이러한 긍정적인 신호에 힘입어 풍부한 화석 연료 자원을 활용해 세계적으로 에너지 패권을 장악해왔던 주요 국가들도 수소 산업을 적극적으로 육성하고 있다.

충북 역시 일찍이 수소산업을 반도체, 바이오, 이차전지에 이은 미래 신성장 산업으로 지정하고 집중육성한 결과 31개 사업 총사업비 5조 3천억 규모로 전국에서 가장 많은 사업을 추진하는 지역으로 손꼽히고 있으며, 이번 간담회에서 논의된 내

용을 충북 수소산업 육성전략에 반영하여 국가 수소산업의 중심지를 넘어 세계로 도약한다는 계획이다.

충북은 수소산업 육성 3대전략을 수립하고 전략1.청정수소 생산 인프라 확대(11개 사업), 전략2.수소 활용 생태계 구축(12개 사업), 전략3.수소 안전·표준화·교육 중심지(8개 사업)를 목표로 전 시·군에 걸쳐 수소에너지 클러스터 조성을 위해 힘쓰고 있다.

이날 참석한 국내 주요 기업들은 충북에서 수소산업을 추진하고 있는 기업·기관들로 사업추진 간에 발생하는 규제나 문제점, 정책건의에 대해 토론했고 참석한 기업 간에 협력이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는 간담회가 끝나고 추가 논의를 하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간담회에 참석한 김명규 경제부지사는 “오늘 논의된 신규사업은 정부의 중점 투자방향과 예산 편성 일정을 고려하여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수소기업들의 애로사항에 대해서는 중앙부처건의, 규제자유특구 지정, 지역 국회의원의 간담회 개최 등 확실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책임감 있게 검토하고 개선하여 충북이 수소산업의 중심지가 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고정화기자



경북도, 원자력 르네상스 실현을 위해 한국전력기술과 손 맞잡아

이철우 지사, '한국전력기술 지속가능 성장&도약을 위한 비전 선포식' 참석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16일 김천 한국전력기술 본사에서 열린 '지속가능 성장&도약을 위한 Vision 선포식'에 참석해 우리나라 원자력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한국전력기술과 상생 협력하기로 했다.

한국전력기술은 국산 에너지 기술 자립을 목표로 1975년 설립돼 원전 종합설계와 원자로계통설계 기술을 함께 보유한 세계적인 회사다.

한국표준원전 'OPR1000'과 국제경쟁력을 보유한 차세대 원전 APR1400, 그리고 중소형 원전인 SMART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원전의 설계기술을 갖추고 있다.

이번 선포식은 정부의 에너지 안보와 탄소중립 수단으로 원전을 적극 활용하는 등 원자력산업 생태계 강화라는 국정과제에 맞춰 한국전력기술의 지속가능한 성장과 도약을 위해 "Technology for Earth, Energy

for Human(환경을 생각하는 기술, 사람을 향한 에너지)"이라는 노사 합동 비전을 선포하고 이를 구체화하기 위한 추진전략 등을 밝히는 자리로 마련됐다.

이날 경북도는 미래 소형모듈원자로(SMR)와 원자력 수소 기술개발을 위해 한국전력기술, GS건설, 현대엔지니어링과 관련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먼저 경북도, 한국전력기술, GS건설은 '국내·외 원자력 및 소형원전 사업 협력'을 위해 △원자력을 활용한 수소 생산 개발 사업 △국내외 소형모듈원자로(SMR) 개발 사업 등에 상호 협력하고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실무협의체를 구성, 운영하기로 했다.

국내·외 원자력 사업 협력을 위해 경북도, 한국전력기술과 현대엔지니어링은 △소형모듈원전(SMR) 사업

개발 및 사업화 협력 △원자력-신재생에너지 연계 수소 및 암모니아 생산 기술 협력 △국내외 방폐장 및 원전해체 사업 협력 등을 위해 상호 협력하고 이를 위한 협력체계를 구축해 나가기로 했다.

한편, 경북도는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원전 생태계 경쟁력 강화를 위한 차세대 원전 기술개발과 함께 관련 산업의 발전과 육성을 위한 수출·사업화 기반 조성 등에 집중할 계획이다.

업무협약 체결과 더불어 경북도와 김천시, 김천시의회는 한국전력기술과 함께 지역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역상생협력강화 업무협약'에도 합의했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한국전력기술은 원전 설계기술 자립으로 우리나라 경제발전을 뒷받침해 왔다”라며, “오늘 노사가 함께 발표한 비전



선포식을 통해 우리나라의 우수한 원전 기술을 세계에 널리 알릴 수 있을 부탁드린다. 또, 오늘 업무협약을 맺은 기업들과 함께 우리나라 미래 원자력 산업 발전을 위해 경북도도 적극 협력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윤근수기자

충북경제자유구역청 오송 국제도시, 외국인 창업 지원 프로그램 스타트

창업희망 외국인 32명 선발, 글로벌 무역기업 육성으로 도내 우수 중소기업 해외 수출 적극 지원

충북경제자유구역청은 '외국인 창업 지원 프로그램 운영사업'에 선발된 창업 희망 외국인 32명을 대상으로 무역전문 교육 오리엔테이션을 5월 15일 청주SB플라자에서 개최했다고 밝혔다.

'외국인 창업 지원 프로그램 운영사업'은 국내 거주 중인 외국인들의 국내 이해도와 현지 네트워크를 활용해, 우수한 제품을 보유하고 있으나 해외 수출 역량이 부족한 도내 중소기업의 해외 수출을 지원하고자 충북경제자유구역청에서 전국 최초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김영한 충북도지사 취임 이후 국내·외 창업 활성화와 중소기업 수출확대를 위해 올해 처음으로 예산을 편성했다.

경자청은 지난 4월 3일부터 한달간 참여자를 모집하고 서류와 면접 평가를 통해 베트남, 몽골, 중국, 캐나다 등 7개국 32명의 외국인을 선



발했다.

선발된 외국인 참여자는 5월 15일부터 한달간 수출입 절차, 관세 및 자유무역협정(FTA), 온라인 무역 등 무역창업을 위한 체계적인 교육을 받게되며, 그 중 역량이 우수한 외국인 20명을 최종 선발하여 사업자 등록 지원, 창업공간 제공 및 체계적인

인큐베이팅 프로그램을 통해 글로벌 창업자로 육성해 도내기업의 해외수출을 지원할 계획이다.

충북도내 중소기업 중 외국인 창업자와 협업하여 해외 판로를 확대하고 수출을 희망하는 기업은 충북경제자유구역청 또는 충북창조경제혁신센터에 신청 가능하며, 향후 외국인 창업자와 매칭 상담회, 수출제품 제조·판매현장 견학 등의 프로그램을 진행할 예정이다.

충북경제자유구역청 맹경재 청장은 “경쟁력 있는 글로벌 무역기업을 창업·육성하여 도내 기업의 우수한 생산품과 뛰어난 기술력의 해외 진출을 확대시키고, 이만자 창업이 90%를 차지하는 미국 실리콘밸리처럼 오송 국제도시를 글로벌 창업플랫폼 성공모델로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고정화기자

군민과 함께가는
의회
영양군의의회

밤하늘엔 별이 빛나고
그 아래엔 삶이 영그는
여기는 영양군입니다







경기도교육청, AI시대 주인공은 바로 나 맞춤형 창의융합교육으로 미래인재 육성

학생이 과학적 호기심을 탐구, 실천까지 확장하도록 지원

경기도교육청이 인공지능 시대를 주도할 미래인재를 키우기 위해 미래형 과학교육 기반의 학생 맞춤형 창의융합교육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학생이 과학적 호기심을 바탕으로 실생활과 연계된 탐구 활동을 하며 문제 해결, 참여, 실천까지 확장하도록 지원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를 위해 ▲인공지능과 디지털 기기 활용 탐구 활동이 가능한 경기 미래형 과학실 ▲상상한 것을 함께 만드는 STEAM 메이커교육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한 탄소중립 환경교육 ▲다양한 영역으로 창의력과 잠재력을 키우는 영재교육을 확대한다.

특히 첨단 기자재를 구비한 경기 미래형 과학실 모델학교(15교)와 지역 맞춤형 경기 미래형 과학실(201교) 구축에 예산 200억을 지원한다. 또 경기 미래형 과학실에서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인공지능 수업콘텐츠를 개발해 학생주도 탐구 중심 과학교육으로 전환을 가속화한다.

학생이 상상한 것을 스스로 펼치고 융합해 만들 수 있는 STEAM 메이커교육을 강화한다. 이를 위해 학생중심 메이커 교육과정 운영 ▲경기메이커학교(19교) 운영 ▲지역사회와 연계한 STEAM 메이커 생태계를 조성할 계획이다.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해서 지역과 학교가 함께 하는 지역 자율-탐구 체험-공동실천의 탄소중립 환경교육을 실천한다.

지역환경교육협의체 구축과 지역환경을 담은 지역교재 개발 ▲데이터 기반 탄소배출량 측정 탐구 ▲교육청·교육지원청·학교가 함께 환경주간을 운영한다.

학생 저마다의 재능과 잠재력 발현을 위해서는 ▲영재학급과 영재



교육원 운영 ▲예술, 인문사회, 정보 등 다양한 영역의 영재교육 운영을 지원한다.

도교육청 이현숙 융합교육정책과 과장은 "인공지능 시대에 과학적 호기심과 협력을 바탕으로 공적 가치를 실현할 수 있는 창의융합형 인재

를 키우는 것이 중요하다"라며 "학생들의 다양한 관심과 잠재력을 발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학교 운영 사례 공유, 지자체-전문기관 연계 등 미래형 과학교육의 전환을 위해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조혜영기자

광명교육지원청, 뇌과학 기반 문해력 향상을 위한 교원 역량 강화에 힘써

경기도광명교육지원청은 광명 뇌과학 기반 문해력 향상 브레인 트리(Brain-Tree) 교원 아카데미를 4월부터 5월까지 총 4회에 걸쳐 실시했다.

브레인 트리(Brain-Tree) 교원 아카데미는 코로나19 장기화로 대면수업을 받아온 초등학생, 특히 초 1~2학년 및 초 6학년을 지내 온 학생들의 문해력 저하가 가속화됨에 따라 학생들의 문해력 향상을 지원하기 위한 광명교육지원청이 기획한 체계적이고 실질적인 교원의 문해력 지도 역량 강화를 중심에 둔 프로그램이다.

문해력 집중지원 학년(초3~4학년 및 중 1학년)의 기초학력 및 문해력 신장에 대한 현장의 요구를 반영하여 광명교육지원청은 초·중교원(30명)을 대상으로 브레인 트리(Brain-Tree) 교원 아카데미를 4월 10일부터 5월 15일까지 격주 월요일 저녁 시간을 활용하여 총 4회에 걸쳐 운영했다.

브레인 트리(Brain-Tree)는 글을 읽는 것은 '눈'이 아닌 '뇌'(Brain)이며 문해력은 나무(Tree)가 성장하는 것과 유사하게 발달됨을 바탕으로 뇌의 균형적 성장을 위한 전환적인 문해력 교육을 의미한다.

뇌과학 기반 문해력 향상 브레인 트리(Brain-Tree) 교원 아카데미는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회차(Seed, 공감)에서는 한양대학교 조병영 교수를 초빙하여 '문해력 교실, 리더러시 학교'라는 주제로 코로나 이후 저하된 문해력의 현실을 정확히 진단하고, 학생들과 학교를 변화시키는 방법으로서 '리더러시의 경험'을 소개하여 아카데미에 참여한 교원들의 문해력 향상의 필

요성과 공감을 불러일으켰다.

▲2회차(Root, 정의)에서는 교사인 플루언서와 함께 뇌기반 학습의 원리, 학생의 의사소통 및 학습 능력 향상을 위한 듣기의 기술 3단계, 공부의 기초 체력을 키우는 문해력 향상을 위한 교실 속 활동들을 소개하고 직접 실행해 보는 시간을 가졌다.

▲3회차(Stem, 해결)에서는 학교급의 특성을 고려하여 '뇌과학 기반 문해력 향상 전략의 설계'를 주제로 초등과 중등을 분반하여 실행학습으로 진행됐다. 초등팀에서는 읽기의 정의, 다양한 읽기 전략(SQ3R, KWL, 26가지 읽기 전략)을 기반으로 학생들의 어휘력과 문해력 향상 방법을 직접 실천해 보았다.

중등팀은 읽기 능력의 파급 효과, 문해력과 기본 학력의 관계 등을 알아보고 문해력 향상을 위한 전략적 읽기 지도 방법을 학교 현장에서 적용할 수 있는 실습을 병행했다.

▲4회차(Leaf, 확산)에서는 뇌과학 기반 최적의 읽기 전략 방법을 넘어 독서를 바탕으로 사고력을 키우는 글쓰기 방법을 통해 학생들의 삶과 연계되는 문해력 향상에 대한 탐구의 시간을 가졌다. 또한 3회차에서 배운 읽기 전략 방법 중 학교 현장에서 적용한 사례를 함께 공유하고 문해력 향상을 위한 지속적인 실천 방안을 논의하며 교원 아카데미를 마무리했다.

류관숙 교육장은 "이번 브레인 트리(Brain-Tree) 교원 아카데미를 토대로 광명 학생들이 문해력을 키울 나갈 수 있도록 현장 교원의 자율적인 연구와 실천의 문해력 플레이그라운드로의 확산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윤용민기자



영양교육지원청, '문향의 고장 영양, 조지훈의 예술혼을 체험하다'

영양교육지원청은 2023년 5월 13일 영양군이 주최하고 (사)한국문인협회 영양지부가 주관하는 제16회 조지훈 예술제에서 지역연계 학교예술교육활동 일환으로 '2023 학교예술교육 부스 체험활동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이번 지역연계 학교예술교육활동 프로그램은 관내 초·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다양한 예술적 감성과 역량을 체험할 수 있도록 부스 형태로 운영됐다.

특히 부스 체험 프로그램으로는 건축 기술과 디자인으로 표현하는 플라잉우드 타공 만들기부터 시인 문구를 나만의 감성으로 표현하는 LED 메시지판과 UV 살균기 만들기, 추억과 예술을 간직하는 인생네컷 사진찍기로 구성됐다.

예술체험 부스 프로그램에 참여한 중학교 한 학생은 "우리가 사는 지역 사회 공간 속에 다양한 예술 프로그램이 있어서 뿌듯했고, 소중한 친구들과 함께 사진을 찍고 추억을 간직할 수 있어서 즐거웠다"라고 소감을 전했다.

김영희 교육지원과장(영양교육지원청)은 "문향의 열과 예술적 혼이 공존하는 영양에서 학생들이 지역 축제와 예술행사에 적극 참여하고 체험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지원을 하겠다"고 했다.

윤근수기자

경북교육청 유아교육진흥원, 설립 주역들 한자리에 모여

김장호 구미시장,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위해 전폭적인 지원"

구미시는 15일 시청 국제통상협력실에서 윤중호 도의회 교육위원회 부위원장, 황두영 도의원, 권영근 도교육청 교육국장 등 8명이 참석해 경북교육청 유아교육청 설립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간담회를 열었다.

(가칭)경상북도교육청 유아교육진흥원은 유아교육에 관한 연구와 정보 제공, 프로그램 및 교재 개발, 유치원 교원연수, 유치원 평가, 학부모 교육, 가족 지원 및 유아체험 교육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는 전담 교육기관으로 구미시 산동읍 임봉길 51-8번지(구, 임봉초등학교)에 부지 14,765㎡, 연면적 5,832㎡, 규모로 2026년 6월 개원 예정이다.

유아교육진흥원은 에듀테크 기술을 이용한 최첨단 놀이 체험 공간 구성과 자연친화적인 체험공간, 유아상담, 다문화 가정 등 소외계층을 위한 체험프로그램, 생애주기별 교원 전문성 신장, 부모교육 및 가족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다.

한편 구미시는 총 인구 41만여명, 영유아 인구 20,660명, 평균연령 40세로 경상북도에서 가장 젊은 도시



로, 365 소아청소년진료센터 운영, 구미시육아종합지원센터 개관, 야간운영 어린이집 확대 등 아이·부모·교사 모두가 행복한 구미시를 만들기 위해 박차를 가하고 있다.

김장호 구미시장은 아이를 키우는 데 온 마을이 필요하듯 경상북도교육청, 도의회, 구미시가 모두 한 마음으로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노력해 줄 것을 강조하며, "유아교육진흥원의 원활한 운영과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구미를 위해 전폭적인 지원으로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김동현기자



내 고향 살리고 혜택도 받는 의성사랑 기부제

개인이나 지자체에 기부하고 지자체는 이를 모아 주민 복리와 지역 활성화에 활용하는 제도



의성군

쉬운 기부 지역사랑 고향사랑 기부금

기부



세액 공제, 답례품 제공

답례품 구입



지역 특산품 생산

10만원 기부 시 세액 공제 100%

3만원 상당 고향의 마음을 담은 답례품 제공

- 기부한도액 : 개인별 연간 500만원 이내
- 세액 공제 : ~10만원(100%), 10만원 초과~500만원(16.5%)

경북도, 강소연구개발특구사업성과 돋보여!

2022년 강소특구 연차평가 결과, 포항 '최우수', 구미 '우수' 등급 받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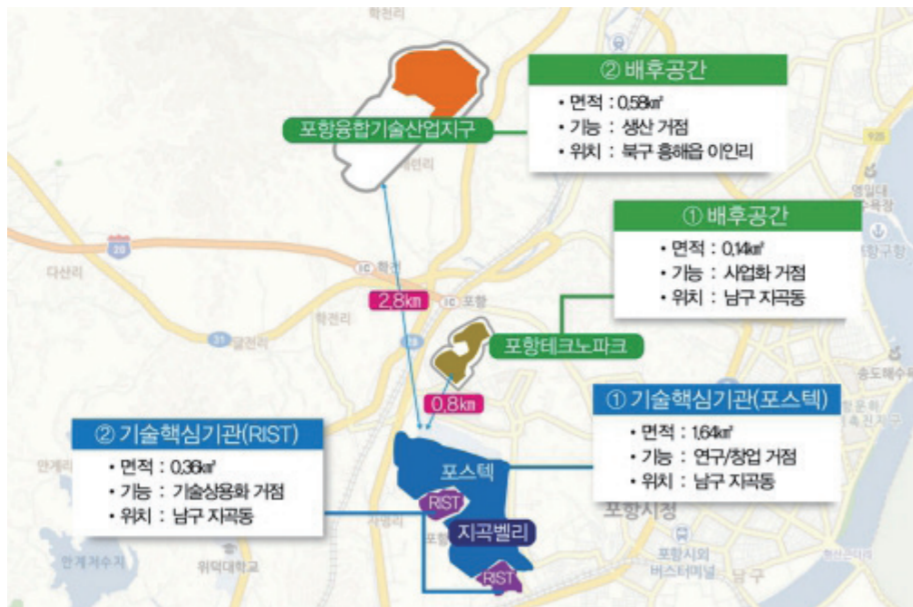
경북도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실시한 2022년도 강소연구개발특구 육성사업 연차평가에서 포항 강소연구개발특구가 '최우수', 구미 강소연구개발특구가 '우수' 등급을 받았다고 밝혔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전국 14개 강소연구개발특구를 대상으로 공공기술이전, 투자유치, 기술창업 실적 등 정량적인 부분과 이를 달성하기 위한 지자체와 사업단의 노력 등 정성적인 부분을 종합적으로 평가했다.

최우수 평가를 받은 포항강소특구는 기술핵심기관인 포항공대의 원천기술, 포항산업과학연구원의 실용화 기술을 연계하는 학·연 융합 오픈랩을 7개 운영하고, 이를 다시 포스코 사내벤처 프로그램과 연계하는 등 우수한 산·학·연 연계 기획창업 시스템을 갖췄다.

73건의 기술이전 및 출자, 5개의 연구소기업과 1개의 첨단기술기업 설립·지원, 14건의 신규창업, 247억원의 특구사업 지원 기업매출액과 477억원의 투자연계, 209명의 일자리 창출 성과를 보여 강소특구육성사업의 모범사례로 손꼽혔다.

우수평가를 받은 구미강소특구는 기술핵심기관인 금오공대를 중심으로 대중소 상생 로보생산 협의회를



비롯한 특화분야 및 지역주력산업 연계협의회를 구성해 대기업과 앵커기업의 수요를 발굴하고, 해당기업과 수요역량을 갖춘 특화기업과의 연계협력을 추진해 스마트 제조분야 매출 향상과 더불어 지역특화기업 육성의 좋은 성과를 이끌어 냈다.

그 결과 37건의 기술이전 및 출자, 11개의 연구소기업 설립·지원, 11건의 신규창업, 846억원의 지원기업 매출액과 65억원의 투자연계, 295명의 일자리 창출의 성과를 보였다.

강소특구는 대학, 연구소, 공기업 등 지역에 위치한 주요 거점 기술핵심기관을 중심으로 소규모·고밀도 집약공간을 R&D특구로 지정·육성하는 연구 및 산업기능이 복합된 지역이다.

경북도에는 포항('19년), 구미('20년) 2개 지역이 강소특구로 지정·육성되고 있으며, 기술핵심기관인 포스텍, 포항산업과학연구원, 금오공대 등 우수 연구 인프라를 활용해 공공기술 발굴 및 기업이전, 사업화 전

주기 지원, 연구소 기업 발굴, 지역 주도 핵심기술 개발 등 지역혁신생태계 구축과 지역산업 발전을 위한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포항강소특구는 기술핵심기관인 포스텍·포항산업과학연구원과 배후공간인 포항테크노파크·포항융합기술산업지구의 연구자원을 활용해 첨단 신소재 분야(바이오, 에너지 나노소재)의 기업성장 시스템 구축과 지역앵커기업 육성에 집중하고 있다.

구미강소특구는 기술핵심기관인 금오공대 우수 연구인력과 국내 최대 내륙 국가산업단지를 보유한 지리적 이점을 활용해 스마트제조시스템(미래형 산업통신, IoT)분야의 신기술 산업 발굴 및 기술사업화, 체계적인 기술창업 성장지원 등 멀티 제조혁신 클러스터 구축을 목표로 사업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최혁준 경북도 메타버스과학국장은 "강소연구개발특구를 중심으로 지역특화산업과 공공기술사업화, 기술창업·지역기업 등이 성장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육성·지원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견인하는 혁신 성장거점으로 역할과 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윤근수/기자

영양 아이들, 조지훈 예술제에서 정호승 시인을 만나다

교과서 속 시인, 정호승 작가 초청 북콘서트 열려



경상북도 영양교육지원청 학교지원센터는 영양군이 주최하고 (사)한국문인협회 영양지부가 주관하는 제16회 조지훈 예술제에서, 2023 지역순회 방과후학교 특별 프로그램 '교과서 속 시인, 정호승 초청 북콘서트'를 운영했다.

학교지원센터는 관내 참여 학생들의 안전과 편의를 고려하여 소속 학교에서 주시마를 테마광장을 오가는 '시인에게로 가는 버스'를 운행했으며, 도내 중·고등학생 및 교사, 교육전문직원 등 50여 명의 사전 신청자에게 정호승 시인의 시집과 독서대 등 기념품을 배부했다.

본 프로그램은 주시마를 테마광장 본무대, 조지훈 문학관 세미나실에서 진행했으며, 정호승 시인의 강연('시(詩)의 비밀을 찾아서') 후, 관객과 질의·응답을 주고받는 북콘서트 형식으로 이루어졌다.

학교지원센터는 참가자들을 대상으로 본 행사에 대한 사전·사후 설문 조사를 실시하여, 강연에 대한 관심과 호응을 이끌어냈다.

프로그램에 참여한 영양여자고등학교 한 학생은 "정호승 시인과의 만남을 통해서, 수업 시간에 배운 시들이 마음속 깊이 와닿았고, 지금까지는 시를 감상하기만 했는데 시인의 강연을 들은 후, 시 쓰기를 시작해 보기로 했다"라고 소감을 밝혔다.

또한 행사장을 찾은 한 장학사는 "작은 지자체의 지역적 특색을 살려 영양 지역의 아이들에게 수준 높은 문화 예술 체험 기회를 제공한 기획력이 돋보였고, 나아가 문학과 시인에 관심 있는 영양 이 외 지역 교육가족을 초대해 주신 영양교육지원청에 감사하다"라 소회를 전했다.

경상북도영양교육지원청 김윤희 교육장은 "우리 지역 예술제 참여 분위기 조성을 통해 지역 특색 사업을 지원하고, 학생들의 인문학적 성찰 확대 및 사제동행 독려를 통해 소통과 공감의 인성교육을 확대해 나갈 수 있는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윤근수/기자

산림청, 국토녹화 명품숲, 국민이 추천해 주세요!

산림청은 국토녹화 50주년을 맞아 그동안 심고 가꾸어온 산림을 국민이 누릴 수 있도록 '국토녹화 100대 명품숲'을 국민추천을 받아 선정한다고 15일 밝혔다. 추천 대상 산림은 접근성이 좋아 국민이 쉽고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고 체계적인 산림경영을 통한 산림의 생태적·역사·문화적·경관적 가치가 높은 숲이다. 국민 누구나 추천할 수 있으며, 5월 1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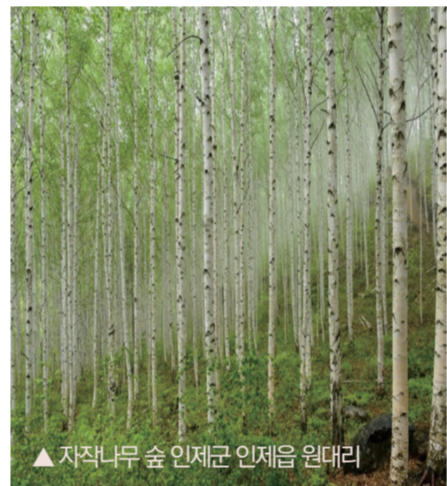
일부터 6월 15일까지 산림청 누리집 '국민소통' 국민참여 '100대 명품숲 국민추천'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추천하면 된다.

추천된 숲은 숲의 가치와 기능, 접근성과 관리상태 등 심사기준에 따라 현장심사와 국민 온라인 심사를 거친 후 선정위원회의 최종 심사를 거쳐 선정된다. 선정된 100대 명품숲은 국토녹화와 산림경영의 우수 모델로 홍보하고, 많

은 국민이 찾아가길 수 있도록 하여 지역관광자원으로 육성해 나갈 계획이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지난 50년간 우리가 가꾼 푸르고 울창한 숲을 국민이 누릴 때가 됐다"라며, "선진국형 산림경영을 통해 임업인과 산주에게는 훌륭한 보물산으로, 국민에게는 삶의 질을 높이는 녹색공간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성지아/기자



▲ 자작나무 숲 인제군 인제읍 원대리

www.k-oceans.co.kr

2023 대한민국 해양수산엑스포

해양수산엑스포

Korea Oceans and Fisheries EXPO 2023

5.31수-6.2금 경주화백컨벤션센터(HICO)

주최: 경상북도 GYEONGSANGBUK-DO | 경주시 GYEONGJU | 주관: mire | 후원: 해양수산부

해양수산 산업의 미래

명품 '붉은 대게' 먹고 가시'게'~

명품 '붉은 대게' 매일 1,000마리를 무료로 즐겨보세요!
 참여: (사)경북붉은대게통합회
 수량: 매일 1,000마리 (행사기간 중)

토속 관상어 전시

여러 종의 관상어 구경하고 금붕어도 무료로 분양하세요~

★ 참관 포인트

신선한 수산물·수산 식품을 한자리에서!
 - 내고향 수산물 판매전, 수산식품 시식행사, 간편식 모음전 등

바다와 만나는 시간!
 - 해양수산 체험관, 토속어류 / 민물고기 특별관, 귀어귀촌 / 어촌특화 특별관, 해양헬스케어 특별관, 해양환경 특별관 등

올해 여름 휴가 준비, 해양수산엑스포에서!
 - 해양·수상레저 특별관(요트, 보트, 제트스키), 지자체 관광지도 등

해양수산 전문가 초청 포럼·세미나
 - 구매상담회, 해외수출 상담회, 기술 시연회 등

대한민국 해양수산엑스포 사무국
 문의 | 053.601-5256

자세히 알아보기